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09:00

진단검사를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

한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면역검사실

장보연 의료기사

한양대학교병원에는 환자 몸에 있는 자가면역 항체를 정확히 검출해 치료 방향을 돕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장보연 의료기사는 정밀 장비를 활용해 응급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들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수십 건의 검사를 준비하며, 외래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과거 채혈실에서 환자들과 나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장보연 의료기사는 모든 검사 결과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Vol.193
May
June
2025 5+6월호 통권 193호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상 - 표지 부문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Special theme

건강의 날's : 중증 및 희귀질환 이야기
The Days of Health ❸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



표지모델 저작권 ©

즐거운 편지

53번째 맞는 푸릇한 계절의 시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이 퍼물기를

햇살이 길어지고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빛은 어느덧 싱그러운 봄날에 다가섰음을 알립니다. 계절이 달라지면 일상의 리듬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이 계절의 생동감을 닮은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회복과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번 5+6월 호에서는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고혈압, 대장암, 신장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다룹니다.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 세계 장건강의 날(5월 29일), 세계 신장암의 날(6월 19일)을 계기로, 질환의 이해와 조기 진단, 치료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올해는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Hanyang Topic에서는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을 만나 병원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중증환자 진료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미래 의료 환경에 발맞춘 구체적인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신뢰받는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전합니다.

또한 Dynamic Hanyang 코너에서는 2025년 전반기부터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게 된 신임 교원 19인을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10명,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9명의 교원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뿐 아니라 병원의 성장에도 기여할 의료진들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건강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윤호주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호 주



SPECIA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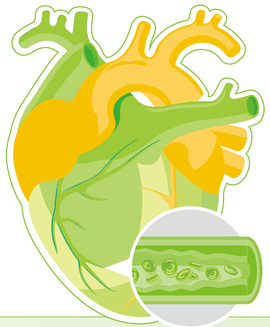
건강의 날's : 증증 및 희귀질환 이야기

THE DAYS OF HEALTH ❸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

햇살 가득한 봄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중증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을 주제로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고혈압, 대장암, 신장암 등 주요 질환의 특징과 예방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

01



침묵 속의 살인자,
증상 없이 찾아오는
고혈압

May
17
세계 고혈압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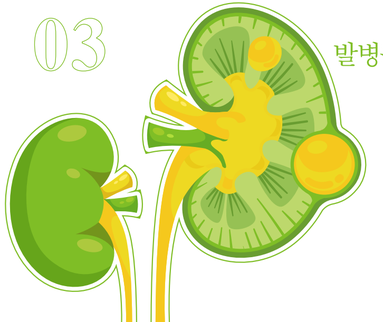
02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대장암

May
29
세계 장건강의 날

03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국내 10대 암,
신장암

June
19
세계 신장암의 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5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지중기름화지방간일교통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 간암등간담
	한동수	목	화	위장관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위장기능검사/식도기능검사/위장내시경/대장내시경/장루장루술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장(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위장(대장)내시경종증, 용종절제술
	안지현			지중기질화지방간일교통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 간암등간담
	주현조	화, 목		췌장질환도담관암, 췌장암도입외과전문
	오은혜			위질환, 식도질환, 대장질환, 대장종양, 위종양, 식도종양, 염증성장질환,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치료내시경
	이재곤	월, 화	금	위질환, 대장질환
	정병욱	수, 금	화	위장(대장)질환, 위내시경(대장)내시경, 소장내시경, 용종절제술, 위암(대장암)내시경절제술, 점막하박리술
	김하람	금	화, 수	지중기질화지방간일교통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 간암등간담
삼장내과	박환철	화, 목, 토(1주)	수	부정맥심장질환 심방세동, 심장판막증, 심장잡음, 고지혈증, 선천성심장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신정훈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경색증, 심장초음파 및 심장CT, 심장MRI 검사,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판막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김병식	월, 수, 토(2주)	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경색증, 심장초음파 및 심장CT, 심장MRI 검사,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판막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이용구	화, 토(3·5주)	수, 금	관상동맥질환 협심증/경색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중증하지허혈질환, 대동맥류수술상담
	김현진	금 토(4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선천성심장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신장내과 ▲클리닉	한상웅	월, 수, 목	화▲	만성콩팥병 당뇨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 수▲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 금	화	만성콩팥병 당뇨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선민			만성콩팥병 당뇨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신영		금	만성콩팥병 당뇨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췌장 당뇨병/지질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유성훈	월, 목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골다공증내분비종양질환 부갑상선질환
	홍상모	화, 금, 토(1주)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갑상선종양질환 비만
	이혜순	수, 목, 토(5주)	화	류마스콜레골관염간질성폐렴류마스폐렴초피폐증후군
류마티스내과	방소영	화, 금, 토(1주)	월, 목	류마토스관절염골다공증, 강직척추염통풍골관절염섬유폐렴폐스그렌증후군근염
	주영비	월, 목, 금, 토(1·4주)	수	류마토스관절염골관염섬강직척추염통풍류마스그렌증후 베체트병피부근염섬유근염스그렌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목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박태선		수	중환자실 전담간호인증호흡기 폐질환,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어유미	화, 수	금	간질성폐질환, 폐암, 결핵, COPD, 천식
	곽현정	화, 수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한경일	목, 금	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암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유방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원영웅	월 수	화, 수	난치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지혈질환 폐암 출혈성 위암 소장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육종 구강 인후암)폐혈암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림프종 다발골수종 백혈구적혈구 혈소판 이상 등 기타 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태은	금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 금	월, 화	소아,청년층 장애 정상범위 넘어 난청, 이명, 청력 손실의 원인규명 및 치료
	최영진	월 수, 토(2·3·4주)	월, 수,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만성기침기침지속
	최은수	화, 금, 토(1·3주)	화, 수, 금	폐쇄소아알레르기비염 성식체중소아감염
	이경석		해 외 연 수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 당뇨,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유전대사질환
	나채윤	금		소아청소년 성장질환 체중기억사장애 성장호르몬검사 부정맥 심근병증 선천성심장질환
	황재균	화 목		신생아황달, 미숙아황달, 영아황달, 예방접종, 호기성영양이상진, 뼈이상질
	유지선	월 목 토(5주)	월, 수, 목	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질환 당뇨 비만 지방간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 수 금	화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 화,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준진	화 목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 토(1·4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박성호	월 수, 토(2·3주)	금	뇌졸중두통 Intervention clinic
	일반		화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	김대호	수, 목, 금▲	월, 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월▲,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재발성우울증
	박선철		해 외 연 수	
신부인과	윤진웅	월 화 토(2·4주)	목, 금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소아발달장애, 소아ADHD
	류기영	월 화 목 토(2주)	화	조기진통 조산 그외원인 초음파 태아이상의 진단 치료 간질관련 특정장애군호흡 난조두증 관리, 자궁하수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부인암검진 난자동 인공임신 복강경 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갑상기 방광탈관리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 우회술뇌혈관내수술뇌종양, 두부외상성장애의 새부전증상
	류재일	화 수, 토(2주)	금	척추질환(퇴행성, 외상, 종양성)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성장애의 새부전증상
	한명훈		해 외 연 수	
	원유덕	금 토(3주)	월, 수	뇌동맥류 모야모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병 혈전내술 뇌외상
	하병진	목, 토(4주)	월, 화	뇌혈관해부질환(스크레닝), 척추외상, 척추수술, 척추내시경수술, 척추종양
	강상목	월, 목, 토(5주)	수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 내 수술, 두부외상
	나민균		금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고선웅	화 금	목	뇌동맥류, 모야모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 내 수술, 두부외상
심장혈관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폐질환 심장종양(간, 폐종양) 혈관질환(폐동맥폐색증, 폐동맥류, 말초동맥폐색증) 흉부외상, 기흉ECMO
	최수환	월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무릎, 골다공증 척추골, 족부 및 족관절, 견관절 및 인공관절
	박기철	수, 금	월	외상골다시 사망률, 골반골절, 사지재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골절,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정규성	화 토(1주)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경 및 인공관절
	조영훈	화 목	월	척추외 수술, 흉강내시경 수술치료, 폐암 식도암 치료
	이영석	월, 토(3주)	화, 금	수부외과수술, 류마티스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질환
	소재원	목, 토(5주)	화, 수	척추 경추골절 및 탈구 흉추 요추 골절 및 탈구 척추 인스트루멘테이션 경추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척추 종양 및 감염 척추 변형
	김현준	목, 금	월	척추 일반 질환 경추, 흉추, 요추
	김장래	월, 금, 토(4주)	월	팔꿈치관절 및 주관절 질환, 견관절 및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불안정성, 족부 및 족관절 질환, 무릎 관절 및 인공관절 치환술, 골다공증 골절, 고관절 및 인공관절 치환술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혈관조영수술 수술치료 외반성형 당뇨발 욕창
	이장현	화 토(2·4주)	목	안면눈코입 재건수술 미세수술 두경부암 재건수술 유방재건 및 인공유방
	장정우	월, 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마상 이중성형
	정재마	수	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성형, 당뇨발, 이중성형
외과	박환경	월, 목	화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췌가체포 치료, 연구, 제대혈혈관세포 클리닉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토	월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위확장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김형석	월, 목, 토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외과 대장암전문 복강경수술
	김동일		목	종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조성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혈관 소아외과질환 성인혈장
	황강환		화, 금	위암도와 치질
	최광우	화 금	목	유장루술 위치장루술 상부장루혈절제술 말초혈관질환 중증하지허혈질환 혈관내경색 혈전제거술 혈관 신장이식
	박예중	수	월, 수	간담췌 외과 복강경 수술
안과 클리닉▲	김민호	화 목 토(1주)	월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원추각막 백내장 안검수술 망막 시각장애인스포츠
	신성운	월 목	월▲, 수, 목▲	망막질환 외과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안종양 안외상
	홍은희	화 토(2주)	수, 금	시력안과 시시 소아안과 자시력 시장애인형 선행안과 눈물길 클리닉 눈꺼풀 안와 안종양 안외상
	황선진	수, 토(4주)	화 수▲, 금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소아외과질환 성인황장
	윤주영	월 토(2주)	화 목	녹내장, 고안압증, 백내장
	홍원경	금	월	백내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일반 안과질환
피부과	김정수	월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장애질환 사마귀점질환 건선 대상포진
	서현민	월, 수, 목, 금▲(1·3주)	월, 수, 목, 금(1·3주)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지루피부염 피부염증 피부감염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토(5주)	목	안면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2주)	수	비염증 비중격 및 코막힘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비염치료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화	두경부종양 구강 인후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수술 경부림프절종양 침샘종양치료
	정선민	수, 토(3주)	월, 금	알레르기비염 크롬이 수면무호흡 뱌비중격이 내시경비중수술 비중격수술 소아비인후과 편도수술 어지럼이진수술 어지럼과전정질환 일반이비인후과질환
	서희원	목 토(1·4주)	월, 수, 금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비인후과 편도술 이비소견수술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목, 토(3주)	월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기과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단일공적
	심명선	월 토(5주)	수, 목	전립선 신장암 방광암 다한지포증수술 복강경수술 소아비뇨기과질환 전립선질환 결석
	송병도	화 토(2주)	월, 금	배뇨장애 비뇨기계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화 토	월, 수	근골격재활 스포츠재활 스포츠의학 신경재활 도수치료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재활 보행분석 족부클리닉수치료
	박재현	월	화 금	근골격통증의학 초음파 골관절염치료 관절내주사 관절내시술 관절치료 도수치료
	윤여준	목, 금	월	뇌심혈관질환의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 작업치료 재활치료
	박원희	월, 목 토(1·3주)	수	심장질환 일반질환 상담 및 치료
치과	김윤영	화 금 토(4·5주)	월 목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주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대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형두		목	법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영태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암, 유전성 질환, 유전성 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수술 마취전 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수, 금	월	급성통증치료 만성통증치료 집중 관절통 암성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증후군 척추통증
	박형준	화 목, 토(4주)	수, 목	척통성근막통증증후군 스크레이션 근통 대상포진 수치통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수	류마스콜레골관염간질성폐렴류마스폐렴초피폐증후군
	방소영	월		류마스콜레골관염간질성폐렴류마스폐렴초피폐증후군
	주영비	수		류마스콜레골관염간질성폐렴류마스폐렴초피폐증후군
발걸음클리닉	장성호	목		근골격재활 스포츠재활 스포츠의학 신경재활 도수치료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목	근골격재활 신경재활 초음파재활 임상재활의학과질환 보행치료 도수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재일		화	척추질환(퇴행성, 외상성, 종양성)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성장애의 새부전증상





contents

Vol. 193 2025 May / June

02 **즐거운 편지** 53번째 맞는 푸릇한 계절의 시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이 머물기를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김영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12 **Hanyang Topic** 조용한 혁신, 흔들림 없는 도약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53주년

16 **The Days of Health Ⅲ**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

18 **Special theme ❶** 침묵 속의 살인자, 증상 없이 찾아오는 고혈압

20 **Special theme ❷**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대장암

22 **Special theme ❸**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국내 10대 암, 신장암

24 **Dynamic Hanyang**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이끌어갈 19명의 새로운 전임 교수진

28 **주목할 만한 연구** 전신 홍반 루푸스 발병 전 자가항체 생성에 유전적 요인 및 면역 기전 규명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원경〉 속 원경왕후를 무너뜨린 학질(말라리아)

32 **Best Partner**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의원 광명새움병원

34 **Dr. Movie** 실존과 외연, 혹은 자아와 몸의 함수관계

36 **예술과 의술의 만남** 산드로 보티첼리와 결핵

38 **고마운 당신에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류제일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40 **언론 속 한양인**

42 **Hanyang News**

44 **Hihy 건강저장소**

46 **발전기금**

48 **이달의 이슈**

49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5년 5월 9일 통권 193호 **발행인** 윤호주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류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아이의 삶과 함께 자라는 의사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일을 넘어, 아이의 삶 전체를 함께 그려나가는 여정이다.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그 여정의 동반자로서, 진료실 안팎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부모의 눈빛에도 깊이 공감하는 그는 연구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조력자다. 문진화 교수의 진료 철학과 연구 여정,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의사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치료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생각하는 진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넘어, 아이의 미래의 삶까지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일이다. 문진화 교수는 전공의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절, 고년차 선배로부터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병원 밖에서도 밝게 웃고 자라나는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막연한 이미지였으나 아이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 교수가 수련을 받을 당시에는 주로 질병의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발달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겨지던 시기였고, 임상지식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바쁜 전공의 생활이 지나갔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로서의 진료를 시작하면서 감기, 장염과 같은 흔한 질환들 외에도 발달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다. 마침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검진이 막 시행되던 시기여서 모든 영유아들이 정기적인 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 검진의 시행으로 언어, 운동, 사회성 등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조기 발견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환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발달과 뇌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문 교수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소아신경학 전임의 과정을 더 공부하고, 다양한 소아신경 분야의 환자들에 대한 경험과 최신 지식을 쌓은 후 모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임상 현장에서 마주한 아이들은 뇌전증, 뇌염, 두통, 발달지연, 신경유전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급성기 치료를 잘 마친 이후 심각한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집중력이나 행동 문제,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습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때로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다. 문 교수는 이 지점에서 '치료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발달 문제가 있는 경우 중재적 개입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낫다. 이는 성인과 달리 치료 시점과 개입 방식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소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문 교수는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아이들의 뇌신경계는 일생의 어느 때보다도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바른 진단과 개입이 이뤄져야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를 마주하다

문진화 교수의 진료는 언제나 '아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그 가족 전체와 함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느린 아동은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부모가 의사를 믿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의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한 진단의 단서다. 아이가 장난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방식은 어떤지, 진료실 입장부터 퇴실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관찰 무대가 된다. 때로는 아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눈을 맞추고, 나이에 맞는 언어와 몸짓으로 대화하며, 장난감 하나를 통해서도 발달 단계를 짚어낸다.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아이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모든 것을 포착하기 위한 진료의 일부이다.

문 교수는 진료 공간의 환경 또한 진료의 연장선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소아청소년과 구성원, 병원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공간의 리모델링 시에도 반영되었다. 아이들의 불안을 낮추고 부모가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대기 공간을 따뜻한 색감으로 꾸미고,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보팀의 협조로 캐릭터를 개발해 소아청소년과 외래 환경 조성에 사용하기도 했다. 문 교수의 이러한 노력은 진료실 안의 시간뿐 아닌, 병원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아이와 가족이 겪는 전체적인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힘든 의료수가 환경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환자의 진료경험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함께 하고 돕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복잡한 예약 일정을 잡아주고 친절히 안내해 주는 외래 팀, 모든 과정이 성인보다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팀과 소아 검사팀의 협력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의 미소를 만든다. 문 교수는 외래 리모델링 후 가장 먼저 기뻐해 준 환자이송원님, 비 오는 밤 진료가 늦게 끝나 귀가할 때 우산을 내밀어준 주차요원분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 밖에서 이어지는 탐구와 세계를 무대로 한 연구 활동

문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국내외 연수와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며, 임상 현장의 고민을 학문적 연구로 연결해왔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Dr. Y. Kano 교수의 연구실에서 틱, 뚜렛 장애의 소아 인지행동치료 연수를, 중앙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과에서 뇌파 신호를 이용한 언어발달 예측 AI 모델 분석 등을 공동 연구하였다. 틱 장애 환자들의 경우 드러나는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를 대하는 주변의 반응에 따라 환자 자신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문 교수는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 신경발달장애에 대해 학교나 사회에서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이에 문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틱 장애 인식에 대한 부모 태도 관련 공동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활동 외에도 도쿄대에서의 임상경험은 한국과 일본의 진료 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의 제형도 한국에 비해 다양했으며 의사가 양약과 함께 한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아이 때 처음 초진을 받은 환자들이 많게는 50~60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인상적이었다. Kano 교수님과 교실원들은 한국에서 온 연구자에게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고, 한국에서는 잘 몰랐던 K-drama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문 교수는 최근 본교 출신 차종호 전문의와 함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정신 건강, 자살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하루 4 시간 사용이 행동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여 관심을 받았다. 이는 문 교수가 오랫동안 이어온 '영유아기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과 뇌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보여주지 마세요'라는 일차원적 메시지를 넘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미디어 사용법을 제시한다. 사용시간을 줄이기, 부모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 가이드는 국가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일반 유아들과 발달장애가 있는 유아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 연구의 성과물은 '바람직한 사용을 위한 유아 스마트 기기 부모교육' 이라는 6주간의 치료 프로그램과 워크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정식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부모교육 치료를 받기 원하는 유아의 부모는 누구나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문 교수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주요 질환 중 하나는 뇌전증이다. 뇌전증은 대뇌 피질의 비정상적 흥분활동으로 갑작스러운 발작이 일어나는 신경질환이다. 다행히 소아기 뇌전증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성장하면서 자연 호전되는 대표적인 뇌전증으로 소아소발작뇌전증과 중심측두뇌전증(롤라닉뇌전증)을 들 수 있는데, 이 뇌전증을 앓는 아이들은 주의 집중의 문제라 언어의 문제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드러나는 발작에 비해 인지적 문제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커진 이후에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문 교수는 현재 소아소발작뇌전증, 중심측두뇌전증 환자들과 정상 소아청소년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뇌전증 환자들의 대뇌연결망과 다면적 인지발달연구' 국가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다학제 연구이며, 종합 인지 검사, 뇌파 검사, 뇌자도(MEG) 검사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소아청소년 연구이다. 뇌전증 환자들의 인지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도록 기여할 것이다. 연구는 뇌전증 환자는 물론 일반 소아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소아청소년과 담당자에 문의 또는 QR코드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다.

뇌전증 환자들의 대뇌연결망과
다면적 인지발달연구
QR코드 접속

진료실에서 시작된 동행, 아이의 삶을 함께 걷다

문진화 교수는 '완벽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아이와 부모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란다. 그는 진료 중에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 아이가 오늘 이 진료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아이가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찰나, 그 모든 순간이 의학적 판단의 출발점이자 인간적인 만남의 기록이다. 그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한다. 진료실의 따뜻한 분위기, 섬세한 관찰력, 가족을 향한 공감은 모두 그 다정한 진심의 표현이다. 더 나아가 그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진료를 넘어 교육, 제도, 연구, 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며, 의료와 사회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문 교수의 진료실에는 단지 질병을 고치려는 의사만이 아닌,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있다. 앞으로도 그는 변화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자라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오늘도 진료실과 연구실을 넘나들며 '함께 자라는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 "진료실의 따뜻한 분위기,
> 섬세한 관찰력, 가족을 향한 공감은
> 모두 문진화 교수의 다정함을 나타낸다.
> 그래서 문 교수의 진료실에는 단지 질병을
> 고치는 의사가 아닌, 아이의 삶을 함께
> 고민하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있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의사의 길 위에서 과학자의 사명을 발견하다

김영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⑮

**김영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이라는 특수하고도 중요한 연구 영역을 20년 가까이 꾸준히 탐색해왔다.
환자를 진료하며 품었던 작고도 날카로운 질문은 점차 연구로, 교육으로 확장되며 의사과학자로서의 길을 단단히 다져주었다.
질병의 기전을 넘어 환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젊은 세대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적 탐구의 기쁨.
김영서 교수의 연구는 곧 삶에 닿아 있고, 김영서 교수가 그리는 미래의학은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향한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인 뇌졸중과 관련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집중하신 연구는 어떤 연구였을까요?

저는 전공의 시절부터 제가 치료한 환자들을 바탕으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중간에 나빠지면 나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뇌졸중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인의 뇌졸중 인식도 조사 등을 포함한 설문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은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임상적 특징이나 영상학적 특징, 실험실적 변수들을 분석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노년기에 생기는 뇌졸중과는 다르게, 특별한 원인 분석과 치료가 필요한 젊은 뇌졸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젊은 뇌졸중'에 관한 연구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는 뇌졸중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는 설문 연구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행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증상 인식이 빠른 병원 도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는 2011년 『BMC Neurology』에 'Stroke awareness decreases prehospital delay after acute ischemic stroke in Korea'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뇌졸중은 발생 후 가능한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환자가 뇌졸중 증상에 대한 교육 부족, 인식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젊은 뇌졸중 환자들을 모집하여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습관이나 스트레스, 직업 환경 등 젊은 세대의 생활습관 중 어떤 요소가 뇌졸중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 수면과 뇌졸중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야모야병이나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동맥박리와 같은 희귀 뇌졸중이나 유전성 뇌졸중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다기관 공동 연구에 참여하며 진단 기준과 치료 방침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Q.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젊은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예전에는 뇌졸중이 주로 고령자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20~30대 심지어 10대 환자까지도 간헐적으로 진단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 8개 대학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45세 이하 뇌졸중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수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생활습관이 예전보다 훨씬 서구화된 것도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고염식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잉,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통적 위험 인자들이 젊은 세대에서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이 10~20대에서부터 발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젊은 환자들은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유전성질환이나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뇌졸중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파브리병 같은 경우 효소 부족으로 인해 발병하는 전신질환인데 뇌졸중으로 처음 발현되기도 하며, 이러한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 발현 시 정확한 검사와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젊은 뇌졸중 환자는 고령자와는 다른 진단 전략과 치료 접근

이 필요합니다. 임상에서도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진료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 자체뿐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뇌졸중 연구 과정에서 '수면'이나 '정신건강' 등과 같은 요소들도 다루셨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들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보다는 환자가 자신의 수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1저자로 참여한 『2023 SKY 연구』 'Association of Long Sleep Duration and Stroke Outcome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도 상쾌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9시간 넘게 자고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뇌졸중 발병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이는 단지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 중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뇌졸중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신과적 증상, 예컨대 만성 불안이나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등도 뇌 건강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젊은 뇌졸중 환자에겐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젊은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도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고, 단순한 의학 연구를 넘어서 환자의 삶과 연결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점점 더 임상과 연결되고, 또 교육과도 연결됩니다.

Q. 최근 들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힘쓰고 계신데요. 해당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철학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들려주세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고,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의미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 과학적인 사고와 연구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미래 의료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의과대학생을 위한 학부과정 과제와 전공의를 위한 연구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연구 아이디어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 유도하고, 연구 설계와 분석의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지도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라는 영역을 진짜 흥미로운 지적 탐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본인의 진로를 기초의학 연구자로 결정하게 되는 의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연구를 새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연구에 관해 고민할 때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구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와 과학의 연결점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자 보람입니다.

Q. 의사과학자가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의료 현장과도 연결된 존재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실제 임상과 융합된 의사과학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의사과학자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며 얻은 문제의식을 연구실로 가져가고, 연구실에서 도출한 해결책을 다시 환자에게 적용하는 '브릿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환자 진료를 하다가 느낀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기나 진단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뇌영상 분석 기술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MRI나 CT 촬영 후 AI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뇌경색 여부를 빠르게 판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판단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AI가 제공하는 1차 판독 결과가 실제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의사과학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형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사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의사과학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진료와 연구, 교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내가 품은 하나의 질문이 수많은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길을 정해 놓고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눈앞의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연구란 결국 '궁금함'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의사로서의 삶이 반드시 진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치료제의 원리를 밝혀내며, 또 누군가는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구실에는 늘 도와줄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고, 함께 성장할 후배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질문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여정을 저는 응원합니다.

Q. 의사과학자의 길을 직접 걸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사실 의사과학자의 길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전공의 시절, 한 교수님이 "정말 재미있는 연구는 밤새 계획서를 써도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진짜 재미있지?' 아직 완전히 그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길을 계속 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학자의 길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고, '질문'을 향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김영서 교수의 연구는 환자를 향한 작고도 날카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과학의 언어로 확장되어 왔다. 그 여정에서 그는 진료의 책임과 연구의 사명을 동시에 품어내며 의사과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임상과 실험, 교육과 소통을 아우르며 의료와 과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그는 오늘도 사람을 위한 의학, 삶에 닿는 연구를 고민한다.

글. 편집실 사진. 안용길

53 Years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조용한 혁신, 흔들림 없는 도약

역사와 첨단의 균형 속에서 나아가는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 53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도심 중심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의료계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온 한양대학교병원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랜 역사 위에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본질에 집중하고, 첨단 기술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의미 있는 변화를 준비 중이다







사람 중심의 변화로 빚는 병원의 품격

한양대학교병원은 올해 병원 조직 전반의 내실을 다지고 체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학병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이러한 흐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삼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진료를 넘어, 병원 문화 전반에서 교직원의 자긍심과 헌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는 각자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병원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수평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진정한 조직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이형중 병원장은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병원의 일원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진다고 강조했다.

환자와의 만남 역시 병원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다. 진료를 넘어 병원에 머무는 모든 시간이 편안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진료 공간부터 응대 시스템까지 세심하게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되며, 보다 조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이 본연의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은 진료 외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의료의 본질로 삼고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셈이다.

한편, 개원 이래 '아시아 최고 수준의 첨단 병원'이라는 명성을 이어온 한양대학교병원은 지금도 미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진료, 교육,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대학병원의 모습을 그리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고 있다.

"우리는 병원 내부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이어야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도 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형중 병원장은 병원의 변화가 소란스럽기보다 조용하고 단단하길 바란다. 구성원과 환자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변화야말로 한양대학교병원이 추구하는 모습이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인프라

한양대학교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진료 인프라 개선과 융합형 의료 체계를 도입하며 뛰어난 진료 성과를 얻고 있다.

먼저 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의 주요 암 적정성 평가에서 연속 1등급을 받았다. 14개 세부 전문센터로 구성된 암센터는 우수한 의료진의 유기적 진료와 최신 로봇수술 장비, 첨단 방사선 치료기 등을 통해 중증 암질환 완치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 도입한 다빈치 SP에 이어, 고사양 MRI 및 CT 장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진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심뇌혈관센터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고위험 중증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최신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난도의 관상동맥중재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진료 체계, 환자 예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심뇌혈관집중치료실 운영, 심뇌혈관 질환에 특화된 시술은 물론 응급 수술까지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최첨단 디지털 혈관조영장비를 갖춘 인터벤션실 등 첨단 인프라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부정맥 시술 누적 600차례 이상,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0회 연속 1등급 등 우수한 치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질환 치료 강화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확충하고, 중증 질환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의 신속한 진료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신의 기기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및 인력을 확충해 중증 환자의 최종 치료를 완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응 역량이 부족한 타지역 중증 응급환자까지도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은 루게릭병 등 난치성 신경계질환과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등 희귀·난치질환 분야에서도 특화된 진료체계를 갖추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진료를 통해 4차 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진료 체계로 실현하는 환자 중심 의료

한양대학교병원은 진료의 연결을 넘어 진료과 간 협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진료 모델도 펼쳐가고 있다. 융합형 클리닉과 센터를 신설해 각 진료과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환자 한 사람을 위한 다면적이고 풍성한 의료를 실현할 계획이다. 예컨대 두경부재건 클리닉(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유방재건 클리닉(외과, 성형외과) 등은 유관 진료과가 환자 맞춤형으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여 환자 만족도가 높다.

이형중 병원장은 "각 진료과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융합 진료를 실현해 새로운 의료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규모나 실적만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류 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중증진료 역량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중환자실 병상 확충, 진료협력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과정은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이형중 병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은 동남권역 중증, 응급, 희귀질환 치료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원, 시설, 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환자 중심의 연속성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차병원들과의 패스트트랙 운영과 450여 개의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진료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한양대학교병원이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병원의 철학과 미래를 담은 가치의 실현이다. 53년의 세월 속에서 다져온 의료의 깊이와 경험,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을 균형 있게 갖춘 병원으로 성장해 가는 이 여정은 환자와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내일의 의료를 준비하고 있다.

개원 53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5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4월 30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개원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우수 교직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또한 '개원 5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해 병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바자회, 고객감동 전시회, 인생네컷 포토부스, 무빙커피 나눔 이벤트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마련해 병원 구성원과 내원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

햇살이 짙어지는 늦봄과 초여름, 건강한 일상을 위해
심장내과 질환인 고혈압, 외과 질환인 대장암,
비뇨의학과 질환인 신장암 관해 알아본다.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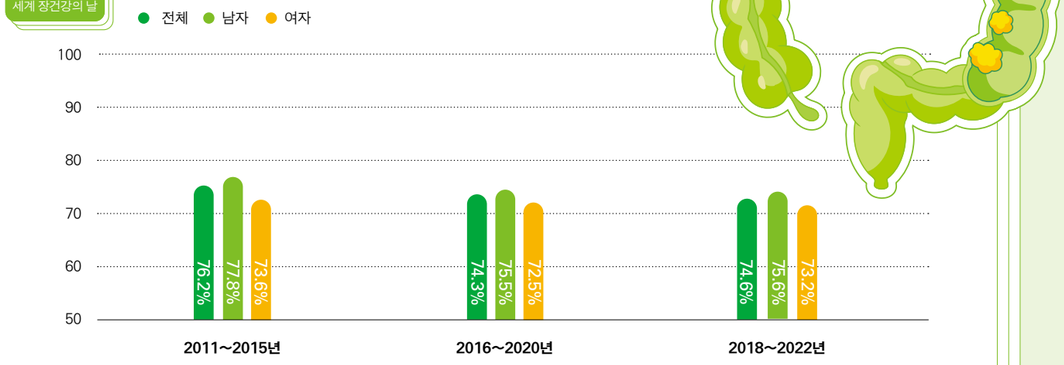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
5월 29일 세계 장건강의 날
6월 19일 세계 신장암의 날

May 29 세계 장건강의 날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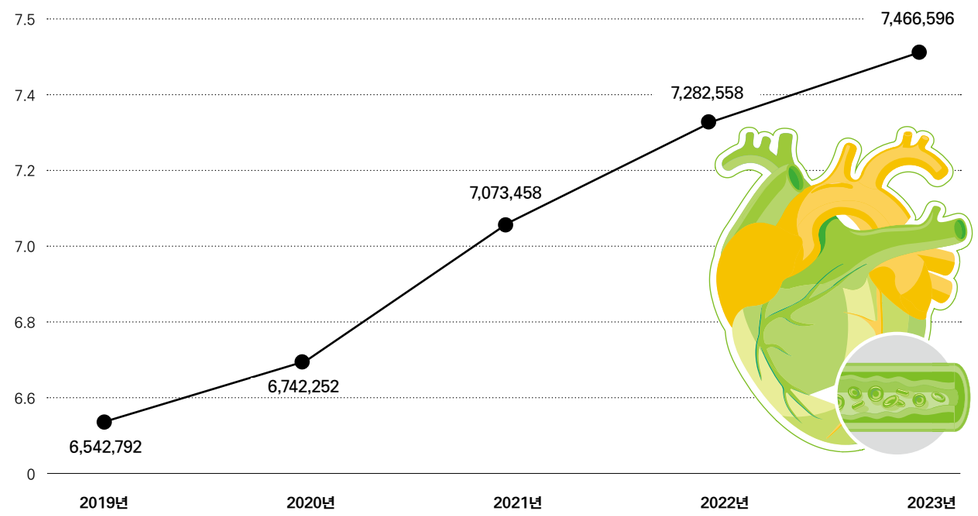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May 17 세계 고혈압의 날

2019~2023 고혈압 진료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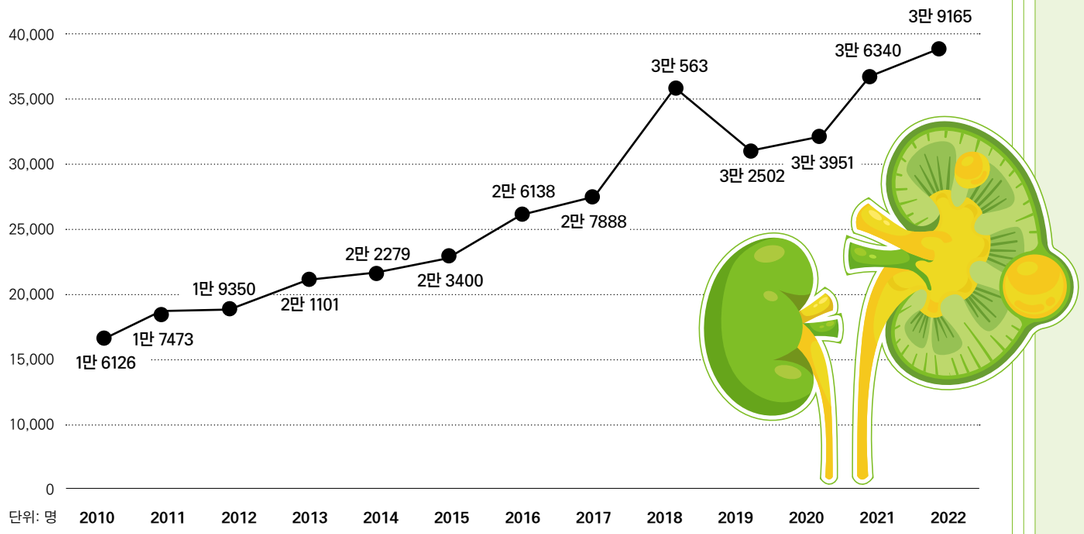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June 19 세계 신장암의 날

연도별 신장암 발생 환자 수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1

May 17

예방과 관리, 올라가는 삶의 질

‘세계 고혈압의 날’

글. **김현진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장내과

혈액 측정 시 2회 이상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다.
고혈압에 걸리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
특히 젊은 층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아 조기 진단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침묵 속의 살인자, 증상 없이 찾아오는 고혈압

고혈압이란 무엇인가요?

고혈압은 혈관 안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혈압 상태를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 또는 ‘침묵의 질환’이라 불린다. 고혈압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심장, 뇌, 콩팥, 눈 등의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질환이므로 반드시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 얼마나 흔할까요?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만성질환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약 30%, 즉 약 1,3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중 남성은 약 720만 명, 여성은 약 580만 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층만 해도 580만 명에 달한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중장년층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점차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고혈압은 모든 연령층에서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혈압의 위험성과 합병증

고혈압은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요 장기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심근경색과 심부전,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만성신장병,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병증 등이 있다. 이처럼 고혈압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며,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혈압, 어떻게 진단하나요?

고혈압은 혈압 측정을 통해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병원에서 혈압계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동 혈압계를 사용해 측정해도 된다. 단, 한 번 측정해서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하지는 않으며, 여러 날에 걸쳐 반복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또한 병원에 오면 긴장으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고혈압’과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일상생활 중 혈압이 높은 ‘가면고혈압’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가정혈압 측정이나 24시간 활동혈압 측정(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ABPM)이 보다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된다. 평소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한국인의 고혈압 관리 현황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유병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본인이 고혈압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77%,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은 74%,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는 비율은 59%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인지율과 치료율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환자가 혈압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연령대의 고혈압 유병자는 약 8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36만 명,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13만 명에 불과하다. 인지율은 36%, 치료율은 35%, 조절률은 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조기에 고혈압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보건의 노력이 절실하다.

고혈압, 어떻게 관리하나요?

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한다. 혈압이 경계선이거나 전 단계 고혈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고혈압이 지속되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첫째,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6g 이하가 적정하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이상 실시한다. 셋째,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므로 적정 체중 유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는 상태에 따라 1제 혹은 2제 이상의 병합요법으로 이뤄지며, 대표적으로 안지오텐신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등이 사용된다. 약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스스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혈압이 조절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압과 약물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혈압을 위한 습관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 음식 선택 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가공식품이나 외식은 줄이는 것이 좋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를 줄이는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도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지금 내 혈압은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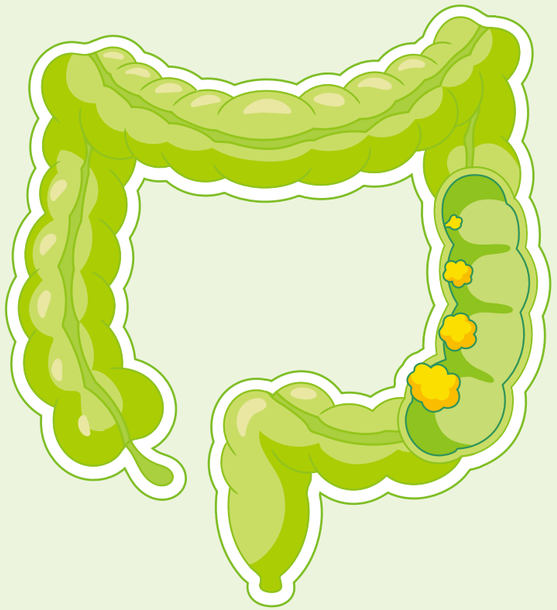
고혈압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 내 혈압이 어떤 지 한 번쯤 확인해 보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대장암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국내에서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편에 속한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대장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에게 발생하는 암 중 대장암은 갑상선암, 폐암, 위암에 이어 네 번째로 흔하게 발생한다. 남자는 폐암, 위암에 이어 3위,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어 3위이며, 사망률 역시 폐암, 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특히 다른 암의 발생 증가율이 대부분 하락하는 반면 대장암 발생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장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장은 소장의 끝부분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기관으로, 길이가 약 150cm 정도에 이른다. 대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칭하여 직결장암이라고도 부른다.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 음식 및 식습관, 그리고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전체 대장암 중 약 90~95%는 대장점막에서 발생한 용종이 오랜 시간 동안 유전적 변이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산발성 대장암이다. 반면 약 5~10%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대장암으로 가족성선종성용종증(FAP), 유전성비용종성(HNPCC)이 이에 속한다. 유전성 대장암은 직계 가족 중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의 빈도가 높아 유전자 검사와 함께 이른 나이부터 철저한 검진이 중요하다. 또한, 유전성 대장암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장암 전문의와 가족력 및 유전성 대장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대장암의 증상

대장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크게 전신 증상과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장암의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피로감, 소화 불량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대장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종종 나타날 수 있어 비특이적 증상이라 하는 반면, 국소 증상은 암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측 대장암의 경우 위치가 항문에서 제법 멀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까운 형태로 변을 보게 되며 빈혈이 흔히 나타난다. 또한, 대장의 내강, 즉 직경이 좌측에 비해 넓기 때문에 암이 크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배에서 혹이 만져진다며 병원에 오는 환자도 종종 있다.
반면 좌측 대장은 오른쪽에 비해 직경이 좁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커져도 장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장폐색, 변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선홍색에 가까운 혈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암의 경우는 선홍색 혈변, 잔변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는 증상을 흔히 보인다.

대장암의 진단과 건강검진

대장암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대장내시경이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작은 용종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을 통해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장항문학회에서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 50세 이상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진 주기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데, 용종이 없다면 5년마다,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용종의 성격과 개수에 따라 1~3년 주기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부터 용종 발견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40대 이전 젊은 연령의 대장암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 권고 연령인 50대 이전이라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대장암의 치료

최근에는 수술 기법 및 수술 기구의 발전,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기법을 동원하여 완치의 기회가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치적 수술이며, 이는 병소를 포함하여 암이 퍼져 나갈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림프절까지 광범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전이성 대장암과 폐쇄성대장암의 경우 고식적 개복술을 시행하나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최소 침습 수술은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가능케 한다. 또한 직장암의 경우 최신 수술 기법인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 항문 보존 가능성을 높이고 영구장루 조성의 빈도를 낮춤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고위험군 2기, 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 및 원격전이가 있는 4기 결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요하며, 2기 이상의 직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근치적 수술 후 시행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나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환자의 나이, 영양 상태,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장암 예방법

① 하루 필요한 양의 적정한 단백질(곡물류, 육류),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② 칼로리 섭취량 중 지방 비율을 30% 이내로 줄인다. 다량의 붉은색 육류와 동물성 지방은 제한하며,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③ 비타민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 과일 등과 함께 잡곡류, 콩류, 해조류, 채소류 등 양질의 식이 섬유를 섭취한다.
④ 풍부한 칼슘을 함유한 저지방 우유 및 유제품, 발효 유제품 등을 섭취한다.
⑤ 하루 1.5 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신다.
⑥ 장기간 보관됐거나 짜게 절인 음식, 짠 음식을 피한다.
⑦ 가공육,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조미료, 훈제 식품은 제한해 섭취한다.
⑧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잠을 잔다.
⑨ 금연은 물론 과음하지 않는다.
⑩ 50세 이후 5~10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 가족력 등 대장암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대장암 예방 검사를 받는다.

‘세계 신장암의 날’

글. **정규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신장암은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다. 신장의 여러 부분 중 어느 곳에 암이 생길까? 신장암의 발생 위험이 드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암에 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장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국내 10대 암 신장암



신장암 발병 위치

신장은 흔히 알다시피 강낭콩 모양으로 양쪽 등허리 쪽에 본인의 보통 주먹 크기로 붙어 있다. 바깥쪽에 대략 1cm에서 2cm 정도 두께의 살 조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실질이고, 그 안에 신우가 깔때기 모양으로 비어 있다. 신장은 깔때기에서 요관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구조로 된 셈이다. 콩팥이 우리 몸에서 모든 피를 받아서 혈액을 걸러낸 다음에 깨끗해진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소변은 신우 쪽으로 보낸다. 그렇게 흘러내려 간 소변은 요관과 방광을 지나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중에서 소변을 걸러내는 조직인 신장의 실제 조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실질에 생긴 암이 바로 신장암이다.

반면, 종종 혼동되는 ‘신우암’은 소변이 모이는 깔때기 형태의 부위에 발생하는 암으로, 신장암과는 발생 위치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신우암은 요관이나 방광과 같은 소변 배출 경로에서 발생하는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며, 신장 실질에 생기는 신장암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장암 원인과 초기 증상

신장암은 상대적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아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종양이기 때문에 흔히 종양의 원인이라고 하는 흡연, 식습관,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흡연은 대표적인 발암 요인 중 하나로, 신장암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며 신장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단백·고탄수화물 위주의 고칼로리 식단,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역시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역시 아주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신장암은 가족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관해 유의하는 게 좋다.

신장은 양쪽 등허리 쪽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있으므로 종양이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직접 촉진 등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증상도 어느 정도 신장암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없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통해 신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미세한 혈뇨를 보이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신장암 초기 증상으로 혈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신장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간혹 혈뇨를 통해 신장암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옆구리 통증 또는 옆구리 주변 복부에 종괴가 만져진다면 신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신장암 검사

암 하면 보통 조직 검사를 통해 발견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암은 대부분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복부 초음파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후에는 CT 정밀 검사를 통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암의 여부를 판단한다.

신장을 조직 검사하는 경우 과다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T에서 암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직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MRI를 먼저 촬영한다. MRI에서도 모호한 경우일 때에 조직 검사 시행을 고려한다. 조직검사가 없어도 영상에서 신장암이 확실시되면 양성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한다.

신장암 치료법

전이가 없는 신장암은 일차적으로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병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수술을 통해 완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크기가 작은 1기 신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 95% 이상에서 5년 생존율을 보인다. 신장암의 크기, 종양의 위치, 깊이에 따라서 제거의 수준은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1기 신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7cm 미만의 신장암을 말한다. 7cm 미만 중에서도 4cm를 기준으로 해서 종류가 나뉜다. 종양의 크기가 4cm보다 작으면 1기 A이고, 4cm보다 크면 1기 B이다. 대부분 1기 A, 4cm 미만의 종양은 신장 전체를 잘라내는 것보다 해당 종양만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신부분 절제술을 고려해 치료한다. 그러나 단순히 크기만으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4cm라도 신장 외곽에 위치한 종양은 신부분 절제술이 가능하지만, 중심부에 깊이 위치한 경우엔 신장 전체를 절제할 수도 있다. 종양의 위치, 모양, 깊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수술 범위를 정하는 셈이다. 수술 후에는 반대쪽 신장이 기능을 어느정도 보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수술 방식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주를 이룬다. 특히 신 기능 보존이 중요한 경우 로봇 수술의 섬세한 봉합이 효과적이다. 다만 종양이 크거나 주변 장기까지 침윤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술 방식의 우선적 고려는 질환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전신 상태 등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동 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종양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열 또는 냉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전이되었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를 활용하는데, 이 역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질환 진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글. 편집실 사진. 안용길

(좌측부터)
박세윤 감염내과 교수, 김진남 감염내과 교수,
최종욱 신장내과 교수, 박진선 심장내과 교수
성원재 신경과 교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이끌어갈 19명의 새로운 전임 교수진

지난 3월 1일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 19명이 임명됐다. 이로써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10명의 신임 교수진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9명의 신임 교수진이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좌측부터)
송승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초롱 마취통증학과 교수, 금지현 산부인과 교수,
김진수 응급의학과 교수, 유경헌 응급의학과 교수



진료와 연구를 아우르다
한양대학교병원 전임 교수진 10명

2025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이 임명됐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박세윤 감염내과 교수, 김진남 감염내과 교수, 최종욱 신장내과 교수, 박진선 심장내과 교수, 성원재 신경과 교수, 송승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초롱 마취통증학과 교수, 금지현 산부인과 교수, 김진수 응급의학과 교수, 유경헌 응급의학과 교수까지 총 10명이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

박세윤 교수는 감염내과에서 감염병 환자 진료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교수님과 협력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남 교수는 감염내과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성인예방접종 등의 감염질환 전문가이다. "면역저하 환자의 감염 및 바이러스 감염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종욱 교수는 신장내과에서 신장질환의 치료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는 10년 가까이 신장질환의 치료와 연구를 진행해왔고, 최신 의료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구체신염, 당뇨병콩팥병, 투석요법 등을 전문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박진선 교수는 심장내과에서 부정맥 치료와 전기생리학 검사 분야의 전문가다. "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도자절제술, 심박동기·삽입형 제세동기 시술 등을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성원재 교수는 신경과에서 루게릭병, 신경근육질환 등을 전문으로 진료 중이다. "신경퇴행성질환 및 유전성 신경계질환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과 신경근육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진료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승환 교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흉부외상, 흉벽기형(새가슴, 오목가슴 등), 기흉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폐암 등 흉부종양 치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초롱 교수는 마취통증학과에서 신경병증 통증, 근골격계 통증, 척추 통증 치료 등 환자 맞춤형 통증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통증이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환자의 일상생활을 괴롭힙니다.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지현 교수는 산부인과에서 생리주기 이상, 폐경, 골다공증, 부인과 양성질환 등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 여성의 건강을 관리한다. "전 생애 주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의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수 교수는 응급의학과에서 소아감염과 소아응급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증후군감시체계, 패혈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감염관리위원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경헌 교수는 응급의학과에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 주로 소생의학과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응급 중환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해당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의사로 환자를 만나겠습니다.

- 감염병 관리와 치료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박세윤 교수
- 전문 분야의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김진남 교수
- 최신 의료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최종욱 교수
-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박진선 교수
-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성원재 교수
- 정확한 진단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송승환 교수
- 통증 없는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게 도움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김초롱 교수
- 환자에게 늘 귀 기울이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 금지현 교수
-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김진수 교수
- 끊임 없이 배우며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유경헌 교수



(좌측부터)
김성재 정형외과 교수,
여유미 호흡기내과 교수,
김하일 소화기내과 교수

(좌측부터)
이재곤 소화기내과 교수,
박성호 신경과 교수,
하병진 신경외과 교수





(좌측부터)
송병도 비뇨의학과 교수,
정선민 이비인후과 교수,
서희원 이비인후과 교수

초심과 전문성을 품은 진료의 시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임 교수진 9명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9명의 새로운 교수진이 진료를 시작했다. 김성재 정형외과 교수, 여유미 호흡기내과 교수, 김하일 소화기내과 교수, 이재곤 소화기내과 교수, 박성호 신경과 교수, 하병진 신경외과 교수, 송병도 비뇨의학과 교수, 정선민 이비인후과 교수, 서희원 이비인후과 교수까지 총 9명이다.

김성재 교수는 정형외과에서 족부와 족관절 진료는 물론 발목 인공관절수술과 변형 교정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난치병에 관한 실험실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기존에 치료법이 없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여유미 교수는 호흡기내과에서 간질성 폐질환, 폐암, 기도질환 및 중환자 등을 맡고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호흡기내과라고 하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하일 교수는 소화기내과에서 간암과 지방간질환 등 간질환 진료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다양한 간질환 환자에게 근거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병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재곤 교수는 소화기내과에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평소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학술 활동과 연구를 통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박성호 교수는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와 신경중재치료(Neurointervention)를 담당하고 있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병진 교수는 신경외과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미세침습 척추 수술 등 척추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향후 척추 로봇 수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 척추수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송병도 교수는 비뇨의학과에서 비뇨기계 종양, 배뇨장애, 요로결석 등을 연구하고 있다. "2024년 11월 병원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을 적극 활용해 종양의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선민 교수는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다루는 비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다. "코와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 진료와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도 함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희원 교수는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이명, 어지럼증, 중이염 등 귀 관련 질환을 담당한다. "난청과 이명 등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에 새로 임명된 19명의 전임 교수진을 통해 각 전문 분야에서 한층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수진과 함께하는 2025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이런 의사로 환자를 만나겠습니다.

-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김성재 교수
- 초심을 잃지 않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여유미 교수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김하일 교수
- 꼼꼼하고 세심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 이재곤 교수
-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박성호 교수
- 치료 기준을 제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하병진 교수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시가 되겠습니다 – 송병도 교수
- 맞춤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정선민 교수
-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서희원 교수

주목할 만한 연구

연구자. **방소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전신 홍반 루푸스 발병 전 자가항체 생성에 유전적 요인 및 면역 기전 규명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 루푸스 발병 전 단계의 자가항체인 항핵항체항핵항체(ANA) 생성에 특정 유전자 요인과 면역기전이 밝혀져 향후 전신 홍반 루푸스 조기 진단과 치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학술지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ARD)』(피인용지수: 20.3) 2024년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된 'Genetic burden of lupus increases the risk of transition from normal to preclinical autoimmune conditions via antinuclear antibody development'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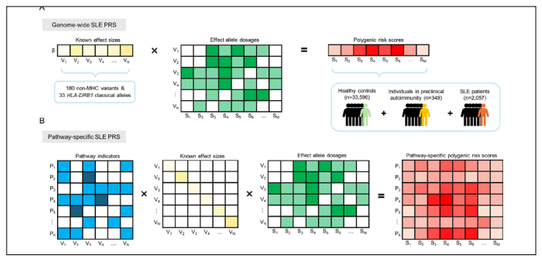
루푸스 조기 진단의 단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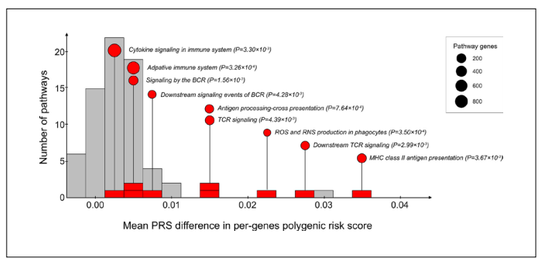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류마티스내과 방소영, 이혜순, 배상철 교수팀이 경희대학교 김광우 교수와 함께 전신 홍반 루푸스 유전적 변이들이 발병 전 단계에서 자가항체 형성과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루푸스와 연관된 유전 변이들이 루푸스 발병 전 단계에서 자가항체 형성과 면역계에 영향을 발굴하여 류마티스학회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ARD)』(피인용지수: 20.3)의 'Genetic burden of lupus increases the risk of transition from normal to preclinical autoimmune conditions via antinuclear antibody development'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정상인에서 루푸스 발병 전 단계(preclinical stage)인 자가항체가 생기는 병적 상태로 전환되는 핵심 기전을 밝혀내어, 루푸스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면역계 이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대표적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의 주요 자가항체인 항핵항체가 존재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를 거쳐 임상적 증상이 발현되는 병적 단계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루푸스와 관련된 다수의 유전적 변이가 발굴되었으나, 질병 발병 전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 생성에 유전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 면역기전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전신 홍반 루푸스란?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전신 홍반 루푸스(루푸스)'는 주로 20~30대 젊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으로 다수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인자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루푸스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로 피부·관절·뇌·신장·심장·폐 등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일컬어진다. 루푸스 발병과 진단에 가장 중요한 자가항체는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이며, 질환 발병이 생기기 몇 년 전부터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발병기전은 규명되지 않았다.

루푸스 유전 위험과 면역 경로

연구팀은 질환 발병 전 단계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건강한 대조군, 루푸스 환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전체 연관 분석을 통해 루푸스 관련 다유전자 위험 점수(Polygenic Risk Score, PRS)를 계산하여, 항핵항체 형성의 요인 및 질환 발병 기전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루푸스 연관 유전적 위험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항핵항체 생성 및 역가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평균 이상의 유전적 위험 점수를 가진 사람은 항핵항체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세포 및 B세포 수용체 신호 전달, 사이토카인 관련 신호 경로 등 9개의 면역 경로가 루푸스 발병 전 항핵항체 형성의 유의한 기전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경로들은 면역 조절 메커니즘의 핵심 역할을 하며, 초기 자가면역 발병 단계에서 질병의 진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론

이번 연구는 루푸스의 유전적 요인이 정상 상태에서 면역반응 이상으로 자가항체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고, 항핵항체 형성에 관여하는 면역 경로를 규명해 자가면역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면역질환 예측 바이오 마커를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면역체계 이상과 질병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상철 한양대학교 류마티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루푸스 주요 자가항체인 항핵항체 생성 및 질환 발병 메커니즘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유전변이는 루푸스의 발병 예측과 조기 진단에 활용되어, 향후 루푸스의 맞춤 치료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연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즘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방소영 교수, 천세환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배상철 교수와 김광우 교수(경희대학교 생물학과)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Remarkable research



◀ Genetic burden of lupus increases the risk of transition from normal to preclinical autoimmune conditions via antinuclear antibody development'

전신 홍반 루푸스 발병 전 자가항체 생성에 유전적 요인 및 면역 기전 규명

글. **박세윤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조선 왕비도 피하지 못한 열병

드라마 〈원경〉 속 원경왕후를 무너뜨린 학질(말라리아)



학질은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으로 말라리아라고 알려져 있다. 갑자기 고열이 나며 설사와 구토 및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빈혈 증상을 동반하면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한다.

tvN 드라마 〈원경〉은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권력과 국정 운영을 함께하며 부부 간의 애정을 지켜 나가는 이야기다. 원경왕후 역의 차주영은 섬세한 연기로 호평을 받았고, 드라마는 인기리에 종영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원경왕후가 '학질'로 사망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학질로 열에 들뜬 원경왕후는 개경으로 향하다가 쓰러지고, 이방원이 냇가에서 원경의 발을 닦으며 애끓는 대사를 전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극 중 원경왕후가 앓은 '학질'은 오늘날 말라리아를 뜻한다. 말라리아는 열대 지역의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오한과 고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근육통, 구토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장기 손상이나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항말라리아제를 통해 치료하며, 해외 여행 전 예방약 복용도 중요하다.

말라리아란

말라리아는 열원충속(Genus Plasmodium)의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흔하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주요 종은 다섯 가지인 열대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vivax), 난형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ovale), 사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malariae), 원숭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knowlesi)으로, 이 중 열대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 가장 치명적이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 때 원충이 혈액으로 들어가 간에서 증식한 후 적혈구를 파괴하며 병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vivax)이 토착화되어 발생하며, 기후 조건상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다.

말라리아의 증상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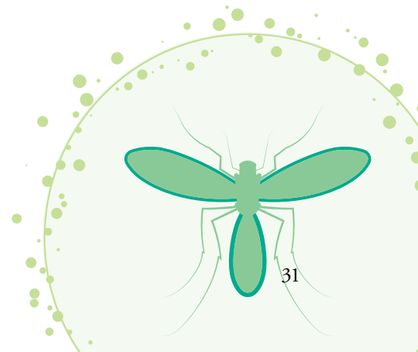
말라리아의 특징적인 증상은 주기적인 발열이다. 원충의 종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삼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vivax)과 난형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ovale)은 48시간, 사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malariae)은 72시간 간격으로 발열이 나타난다. 열대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falciparum)은 24시간, 36시간, 48시간 등 불규칙한 발열 패턴을 보일 수 있으며, 원숭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knowlesi)은 24시간 주기로 매일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 발열에는 오한과 발한이 뒤따른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빈혈, 황달, 간 비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증상은 감염 후 10일부터 시작되지만 빠르면 7일, 늦으면 1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뇌성 말라리아, 신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과거 학질(鶴疾)로 불리던 이 병은 이러한 증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현대 의학에서의 진단과 치료

현재 말라리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된다. 혈액 도말 검사는 현미경으로 기생충을 확인하는 기본 방식이며, 신속진단키트(RDT)는 현장에서 빠르게 결과를 제공한다. 치료는 말라리아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삼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vivax)과 난형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ovale)은 혈액 내 원충 제거를 위한 클로로퀸과 간에 잠복해 있는 수면소체(hypnozoites)를 제거하기 위한 프리마퀸을 함께 사용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열대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falciparum)에는 약제 내성을 고려하여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피로나리딘/아르테수네이트 또는 메플로퀸 등이 사용된다. 중증 말라리아는 비경구용 항말라리아제(정맥용)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과 오늘날의 과제

말라리아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모기장을 사용하거나 방충제를 뿌리는 개인적 노력은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인다. 지역적으로는 모기 서식지 제거와 같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매년 수십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파 지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퇴치되었다가 1993년 이후 휴전선 근처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Plasmodium vivax) 감염이 재발생해 현재는 인천,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 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환자의 시간을 함께 걷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의원 / 광명새움병원



광명새움병원은 발·발목 질환과 스포츠 손상 치료에 특화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수술부터 재활, 회복까지 환자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김응수 원장은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스포츠 손상 치료의 사각지대를 메우다

김응수 원장이 처음 발목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운동선수였던 환자 덕분이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한 학생이 병원을 찾았고, 그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청소년 운동선수는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진단과 수술에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선수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2012년 개원한 광명새움병원은 김응수 원장의 이러한 진료 철학 아래 스포츠 손상 치료에 특화된 병원으로 성장했다. 중·고교 운동선수부터 국가대표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특히 선수 개인뿐 아니라 코치, 가족과의 소통이 병행되어야 회복 속도와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새움병원의 시스템 또한 수술 후 빠르게 재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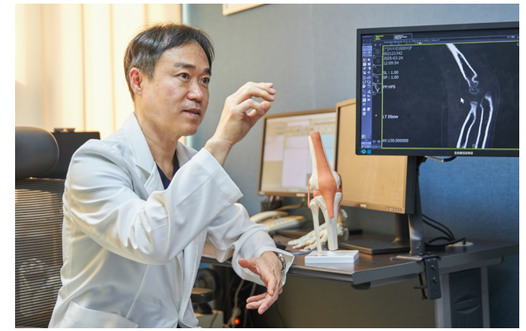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발목 인대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김 원장은 고난도 족부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미국, 프랑스, 중국, 아랍 지역 등 해외 학회에서도 활발히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새움병원은 관절, 척추, 족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선천성 발기형, 발가락 변형, 소아마비 후 변형 등 복합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광명새움병원을 찾는다.

환자의 몸에 맞춘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다

2024년, 광명새움병원은 미국 스트라이커사에서 개발한 최첨단 로봇 인공관절 수술 장비 '마코(MAKO)'를 도입했다. 0.1도 단위까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장비는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회복 속도를 단축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코는 환자 개인의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합니다.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기존 수술법보다 정밀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광명에서 서울과 같은, 혹은 더 나은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광명새움병원은 이 외에도 대학병원급 3.0T MRI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전체 의료진이 모여 최신 수술 및 재활 지견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치료 방향을 조정하는 체계 덕분에, 의료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갖춘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지만 단단한 병원을 향해

현재 광명새움병원에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등 9명의 전문의를 포함 1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광명 시민이지만, 실제로는 부산, 광주, 순천 등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다.

"광명새움병원은 정형외과 중에서도 하지, 발목, 스포츠 손상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진료가 광명새움병원의 기본입니다. 의료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실제로 광명새움병원은 직원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독서 지원, 동호회, 회식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병원을 지향한다.

김 원장은 최근 연구와 교육 활동도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병원의 미래를 '규모의 성장'이 아닌 '내실의 강화'로 보고 있다.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의 협진을 통해 전국 단위의 환자를 치료하고, 필요한 환자는 한양대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진료의 연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논문도 많이 쓰고, 해외 강의도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은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좋은 연구는 결국 좋은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진료, 그 중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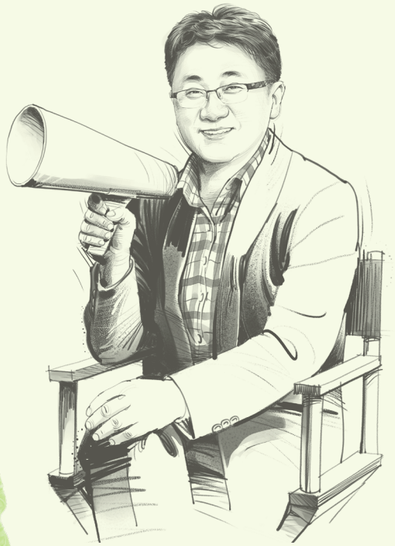
위치 경기 광명시 오리로 518
문의 1661-6888

Dr. Movie

실존과 외연, 혹은 자아와 몸의 함수관계

내 인생의 영화 102





A와 B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명 사이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겉으로 보여지는 A와 B가 있을 수 있고, A가 생각하는 B(A는 스스로를 A라고 규정짓는다), B가 생각하는 A(B 역시 마찬가지이다)와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A와 B. 이렇게 4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궁금할 거다.

의사(醫師)라는 직업을 논할 때, 사람을 치료하는 업무를 본질로 한다는 의미의 천부적인 업(業)으로서의 의사가 있을 수 있고, 근무하는 병의원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근무연한과 전문의 취득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이름의 직(職)으로서의 의사가 존재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의사 본연의 역할은 고통에 빠진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생명유지와 건강회복이라는 숭고한 업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의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마다 우선시하는 개별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 말했던 소위 '의사 카르텔'이란 생경한 언어처럼 매우 극단적이고 편협된 개념 정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불편해진 것은 나도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외연과 내면이 일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려면 말과 생각, 행동이 그를 충분히 규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 즉 언행일치가 완벽히 구현되는 인간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뭉스럽거나 그게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내성적이어서 속내를 들킬 염려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귀가 활짝 열려 있어 잘 들으면서도 유연하게 생각하고, 열린 두 손과 어깨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면서도, 입은 무겁고 행동은 더더욱 신중한,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하면 안될 일은 구분할 줄 아는 양식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가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비춰지는 지식의 총량보다는 스스로 조리해낼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존중하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리더의 쉽지 않은 책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위와 아래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숙명을 가진 기관의 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쉽지 않다.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용되어 돈을 벌기 위해 사실상의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하고 극단적인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실험용 쥐처럼 사용되다가 폐기되면 다시 똑같은 이름의 그 다음 인간으로 '리프린트'되는 영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가 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2025〉은 처음으로 할리우드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야심차게 제작된 블랙코미디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 자체가 블랙코미디가 되어 버렸다. 흥행실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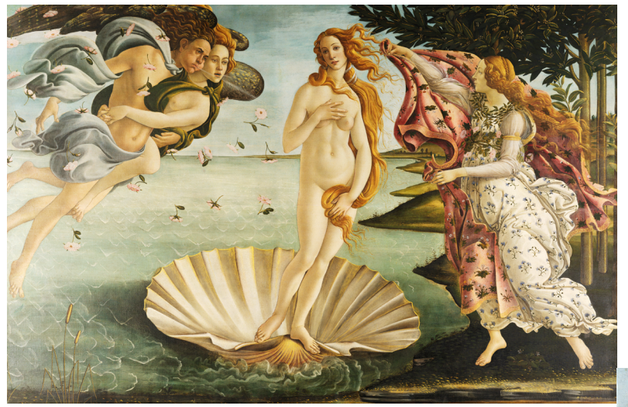
전작 〈기생충, 2019〉에서도 주인공 기택이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대만식 카스텔라 매장을 하다가 망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카롱을 팔다가 망해버린 미키 번스는 악덕 사채업자를 피해 서기 2054년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가서는 위험한 일을 도맡고 죽으면 다시 기억을 백업시켜 되살아나는 '익스펜더블(소모품)'로 지원한다. 영화 도처에 자본주의, 콕집어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날선 비판이 보인다. 먼저 말 그대로 소모품처럼 되어 버린 비정규직의 양산과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무관심 그리고 그들의 순응, 〈설국열차, 2013〉에서와 같이 극복할 수 없는 계급 차이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느껴진다. 우주사령관 케네스 마샬의 허풍스러운 말투와 과장된 몸짓은 미국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여 받아들일 만 했으나, 부인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최고위직 사령관 모습은 바로 얼마 전까지 느꼈던 묘한 기시감을 통해 헛웃음이 나오게 만들었다. 빈대처럼 생긴 외계생물체인 크리퍼는 보기와는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무력이 아닌 협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생긴 모습(종교, 인종 등등 포함)이 자기와 다르다고 하여 반대편을 학살했던 지구 곳곳의 제노사이드, 백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원주민 인디언을 멸절시킨 식민의 시대와 맞물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이 동부 메사추세츠 해안에 당도한 원죄를 답습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미키는 계속 죽고 또 다시 재생되며 어느덧 17호까지 이르렀는데 사령부 밖의 외계생물체인 크리퍼와의 조우 후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미키 18이 만들어져 둘이 맞부딪히는 '멀티플' 사태(영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부함)가 생기게 된다. 온순하고 체제순응적인 미키 17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미키 18은 사령관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다. 이 시점에서 같은 DNA를 가지고 동일한 기억을 백업시켰지만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미키 17과 18의 성격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진다. 다시 리프린트될 것이 자명하지만 죽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터인데 마치 〈엣지 오브 투모로우, 2014〉처럼 되풀이되는 죽음의 과정 혹은 타임 루프에서 조금씩 기억을 확장시켜 실수를 줄여나가는 필연적인 과정상의 진화로 치부하는 것이 속편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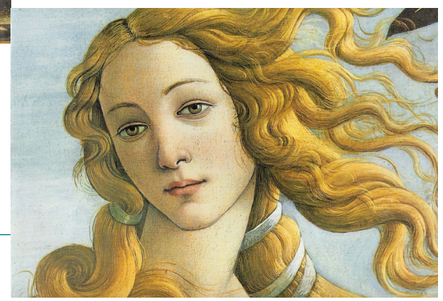
더 젊어져서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노력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대스타였지만 현재는 TV 에어로빅쇼 진행자로 전락해버린 왕년의 인기 여배우 엘리자베스는 50세가 되던 날 담당 PD로부터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집으로 가던 차 안에서 자신의 옥외광고탑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신비로운 분위기의 젊은 의사를 만나게 된다. 〈서브스턴스, 2024〉에서 잃어버린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금단의 약물을 투여하게 된 그녀가 달라진 새로운 또 하나의 젊은 그녀와 번갈아가면서 공생할 때 지켜야할 단 하나의 규칙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을 어기게 되면서 괴물 '몬스트로 엘리자수'로 변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변모된 주인공을 카메라가 직접 잡지 않고 거울에 비춘 모습을 스캔하는 장면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영화에서는 몸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득한 거울을 보는 방식, 이미지를 해석하는 주입된 방식을 깨부수는 것을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나이가 들어 더 젊고 매력적인 사람에 의해 밀려나는 불안감과 불편함 때문에 미지의 약물을 주입했던 그녀. 마지막 장면 괴물로 변한 그녀가 뭔 잔뜩 기대한 관중들 앞에서 융해되면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피가 모든 사람을 피로 물들이는 장면으로 절정을 이룬다. 결국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녀 자신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편견에 기인한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답지 않다"라는 말을 싫어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사람들은 하나의 잣대로 규정짓고 내가 아닌 남을 평가하는 것을 즐긴다. 남들과 다르면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럴 때면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에 있는 꿈을 꾸곤 한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여러 개의 내 모습 중에서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지 말이다.



예술 속에 투영된 감염병의 역사



산드로 보티첼리와 결핵 Tuberculosis

'비너스의 탄생'으로 잘 알려진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상화된 아름다움의 정점을 그려낸 인물로 기억된다. 그의 대표작 속 주인공은 그가 생전 사랑했던 여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모델로 했다는 설이 있다. 시모네타는 결핵으로 23세에 요절하며 많은 이들의 애도를 받았다. 창백한 피부, 가느다란 체형, 멍한 시선은 결핵 환자의 전형적인 외양과도 맞닿아 있으며, 당대 유럽에서 결핵은 연약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 속 주인공을 감상하며 결핵에 관해 알아본다.

결핵의 분류

결핵은 주로 폐를 침범하는 질환이지만, 전체 환자의 최대 3분의 1에서는 폐 이외의 장기(림프절, 뼈, 복막 등)를 침범하는 폐외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 예를 들어 HIV 감염 환자의 경우 폐외결핵 단독 또는 폐결핵과 동반된 형태가 흔하게 나타난다. 폐결핵은 전통적으로 원발성 결핵과 재활성 결핵(또는 성인형 결핵)으로 구분된다.

원발성 결핵은 결핵균에 처음 감염된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로 주로 소아에서 관찰되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인다. 흉부 영상에서는 주로 중·하엽에 위치한 Ghon 병소와 종격동 림프절 종대가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드물게 결절홍반이나 수포성 결막염 등의 면역 반응이 동반될 수 있다

반면, 재활성 결핵은 과거 감염이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시 활성화되는 형태로 성인에서 흔히 나타나며 상엽 침범, 공동 형성, 전염성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성인 결핵의 많은 사례가 과거 감염의 재활성이 아니라, 새로운 감염(재감염 또는 초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보고되고 있어, 이 구분은 점차 재정립되고 있다.

결핵의 진단

결핵은 주로 공기 중 비말핵(droplet nuclei)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예방적 항결핵 약제를 투여함으로

글. **여유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특히 면역저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폐 외의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써 질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결핵균은 일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으며, 산-알코올 탈색에 저항성을 가지는 '항산균(acid-fast bacilli)'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항산성은 결핵균 세포벽의 풍부한 미콜산(mycolic acid)과 다양한 지질 성분에 의해 나타나며, 이는 약제 투과성을 낮추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전형적인 증상(예: 만성 기침, 체중 감소, 발열, 야간 발한 등)과 함께 상엽에 공동을 동반한 폐침윤이 관찰되는 경우, 특히 고위험군(고령자, 면역저하자, 결핵 유행지역 거주자 등)에서는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나, 국소성 폐침윤만 보이는 청소년 환자에게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기 쉽다.

결핵은 흔히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흉부 X선 이상 소견을 통해 처음 의심되며, 면역기능이 정상이면 일반적으로 상엽 침윤 및 공동 형성이 관찰되지만, HIV 감염 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경우 하엽 병변, 공동 없이 간질성 침윤만 보이는 비전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

결핵 진단에는 무엇보다도 단계별 체계적인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 및 1차 진료 수준에서는 임상 평가와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선별 및 의뢰 역할을 수행하며, 2차 의료기관(예: 지역 병원)에서는 신속 핵산 증폭 검사(예: Xpert MTB/RIF) 또는 기존의 도말 검경(AFB microscopy)을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이 외에도 분자 진단, 신속 배양 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DST)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침 수립이 이루어진다.

결핵의 치료

결핵 치료의 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사망률을 줄이고 재발과 약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치료를 통해 환자의 감염력을 없애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핵의 약물 치료는 1943년 스트렙토마이신이 처음 발견되면서 가능해졌다. 초기 임상시험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단독 투여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망률 감소 및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곧이어 내성균주의 출현으로 단독 치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PAS), 이소니아지드(INH) 등의 병합 요법이 도입되었고,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용해야 완치 가능하다는 개념이 정립됐다. 1970년대 리팜핀의 도입과 함께 결핵 치료는 기존의 12~24개월 장기 치료에서 벗어나, 6개월의 단기 표준치료(short-course therapy)로 단축될 수 있었다. 현재도 리팜핀,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네 가지 약제를 포함한 6개월 요법이 약제 감수성 결핵의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다제내성 결핵(MDR-TB)과 광범위내성 결핵(XDR-TB)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치료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항결핵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베다퀼린(bedaquiline)과 델라마니드(delamanid)가 기존 WHO 권장 MDR-TB 치료에 추가 약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에는 새로운 약제 프레토마니드(pretomanid)가 베다퀼린, 리네졸리드와 함께 사용되는 복합 요법으로 승인되며, 기존 약물에 내성을 가진 MDR-TB 환자에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핵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감염병이지만, 그 진단과 치료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이제 결핵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치료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0% 이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높은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남아 있는 만큼, 조기 진단, 표준화된 치료, 약제 내성 관리, 그리고 공공보건 체계의 강화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결핵은 단순한 과거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현재 진행형 감염병이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류제일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지난해 12월, 체육관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이승진 님은 갑작스러운 전신마비 증상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신경외과 류재일 교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늦게 병원으로 달려와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 이승진 님은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됐다. 그는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주신 분"이라며 수술을 집도한 류제일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나게 해주신 류제일 교수님께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 류제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이상 증상을 느꼈고, 곧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응급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처 병원들은 의정사태로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연락드렸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MRI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경을 눌러 전신 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류제일 교수님은 휴일임에도 병원으로 달려와 밤늦게 수술을 집도해 주셨습니다. 수술 직후 왼쪽 다리에 미세한 반응이 생겼고, 다음 날에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손가락, 감각, 다리에 차례로 반응이 돌아왔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모든 회복 과정을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소년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함께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가르치는 일이 일상이었기에, 다시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서두르지 마세요. 젊으시고, 근육량도 있으니 분명 더 좋아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 중 만난 교수님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정말 기적이에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목 보호대를 떼고 걷는 제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보여요"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깊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날을 바라보며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야."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신 류제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진 드림

삶을 향한 용기를 보여주신 이승진 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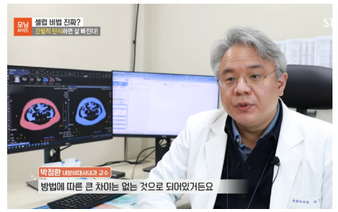
다시 걷는 모습을 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환자의 회복은, 의사에게도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승진 님의 회복은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긴급히 촬영한 MRI에서 경추 5~6번 디스크 파열이 확인됐고, 이는 바로 척수를 압박하면서 하지마비를 유발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의 결정과 수술 여부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척추 손상은 신경외과에서 가장 긴박하고 예측이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골든타임 내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반대로 조기에 정확하게 처치하면 기적적인 회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술 당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발끝에 미세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이승진 님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늘 아이들과 함께 몸을 쓰던 분이셨기에, 다시 걷고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누구보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가는 모습, 물리치료에 묵묵히 임하는 태도에서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회복은 수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역할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환자의 의지와 노력이 만듭니다. 이승진 님은 매 순간 그 절반을 뛰어넘는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회복 속도와 움직임이 실제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진료와 재활을 이어가신다면, 90%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남은 여정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환자 본인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류제일 드림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5년 2월 ~ 3월



SBS 모닝와이드 **박정환 교수**
간헐적 단식



KBS 특집다큐 **노성원 교수**
중독



MBN 뉴스 **김진수 교수**
노로바이러스



SBS 모닝와이드 **권준수 교수**
중증 정신질환

On-Air



SBS 모닝와이드 **최수진 교수**
알고 보면 위험한 단백질



MBN 명사수 **정수 교수**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SBS 모닝와이드 **이상표 교수**
저탄수화물 식단이 대장암 유발



MBN 뉴스 **이봉근 교수**
정형외과 고난도 수술 필요한 데 환자 받을 수 없다

한양대학교병원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5일/ 셀럽비법_간헐적 단식
박진화 소화기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2월 6일/ 대장용종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 [특집다큐]/ 2월 9일/ 전자 담배도 담배다
김진수 응급의학과 교수 MBN [뉴스]/ 2월 14일/ 노로바이러스 '10년 내 최고 수준'…"백신 없는데 재감염"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18일/ 중증 정신질환
최수진 재활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18일/ 수상한 소문_알고 보면 위험한 단백질?/ KBS Radio [건강365]/ 3월 11일/ 통증재활
정수 신경과 교수 MBN [명사수]/ 2월 26일/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홍승우 신경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3월 2일/ 파킨슨병과 뇌심부자극술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12일/ 백년습관, 꿀잠 부르는 습관, 치매, 뇌졸중 등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MBC, SBS, YTN/ 3월 13일/ "정부 비급여 · 실손보험 개편안, 경증-중증 분류 기준 모호" MBN/ 3월 28일/ "정형외과 고난도 수술 필요한 데 환자 받을 수 없다"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3월 13일/ 저탄수화물 식단이 대장암 유발?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3월 16일/ 콩팥이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성호 신경과 교수 JTBC [지킬박사와 가이드]/ 2월 2일/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MBC [다큐프라임]/ 3월 30일/ 혈관, 백세까지 쌩쌩하게!
최수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구리비전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2월 7일/ 검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진단 및 치료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6일/ 걷기 오르기 첼린지, 1주간의 도전
김지은 감염내과 교수 구리비전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3월 7일/ 올바른 항생제 사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26일/ 백년습관, 생애 주기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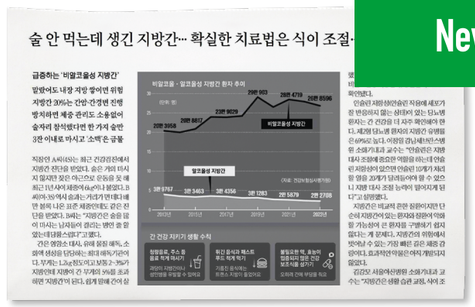
2025년 2월 3일(월)


이른 초경, 늦은 결혼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 증가…10년간 환자 더 는다

2025년 2월 11일(화)


명절 끝나고 손목 저리고 아프다면… 1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2025년 3월 11일(화)


술 안 먹는데 생긴 지방간… 확실한 치료법은 식이 조절

2025년 3월 25일(화)


교실선 말썽쟁이… 혹시 우리 아이도 ADHD?

News Paper

한양대학교병원

김희진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2월 1일/ 70대 치매 노인이 시 썼다…뇌 되살린 하루 '한 숟가락'
윤초석 감염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2월 4일/ 독감약 먹고 좋아진 서희원, 왜 급사망?…"'이 치료' 타이밍 놓쳤을 것"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헬스경향/ 2월 4일/ 감기와는 차원 달라요…치명적인 '폐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윤경 외과 교수 머니투데이/ 2월 5일/ 병든 소에서 빼낸 '○○' 금값 2배로 껑충…몸에도 '금빛'?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헬스조선/ 2월 24일/ 수영, 티파니한테 에너지 솟으라며 '이 간식' 선물… 효과 어떻길래?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뉴스1/ 2월 12일/ 대전 초등생 비극이 '정신병력' 때문?…"잠재적 범죄자 오해 우려"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3월 25일/ 아침마다 등교 전쟁, 교실선 말썽쟁이… 혹시 우리 아이도 ADHD?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메디컬투데이 외 9건/ 3월 13일/ '돈 먹는 하마' 비급여 손보겠다는 정부에 "보험사만 배불릴 것" 주장 왜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겨레/ 2월 10일/ 비밀 보장해 주고 · 논리적 분석…청년들 "챗GPT는 친한 친구"/ 뉴스1 외 5건/ 2월 13일/ 사회적 편견에 정신질환자 치료 꺼린다/ 동아일보/ 2월 14일/ "친구들과 자주 지나던 시청 각실인데…" '하늘이 사건' 트라우마 시달리는 아이들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2월 24일/ 더 세다는 신종 박쥐 코로나, 中서 일부러 만들었다?…전문가 의견은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3월 10일/ 찌개 펄펄 끓을 때 간 봤는데…건강 망치는 지름길/ 조선일보/ 3월 27일/ 치매 진단 받아도… 신체 활동해야 오래 살아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3월 26일/ 비염→아토피→천식…돌고도는 '알레르기 행진' 호흡곤란도 부른다?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신문/ 3월 11일/ 술 안 먹는데 생긴 지방간… 확실한 치료법은 식이 조절 · 운동뿐
박진선 심장내과 교수 헬스조선/ 3월 11일/ 심장마비 위험 높은 암 환자… 관리법은?
성원재 신경과 교수 매경헬스/ 3월 13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면, '이 증상' 때문?
고주연 피부과 교수 헬스경향/ 3월 14일/ 미세먼지에 숨은 오염물질까지…봄옷, 절대 그냥 입지 마세요
주민숙 피부과 교수 머니투데이/ 3월 22일/ 어릴 땐 금세 아물었는데…잘 낫지 않는 상처, 왜?
김인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겨레/ 3월 28일/ 산불이 꺼져도 건강 재난은 남는다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신문/ 3월 11일/ 술 안 먹는데 생긴 지방간… 확실한 치료법은 식이 조절 · 운동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세계일보/ 2월 24일/ 잔혹 범죄만 일어나면 조현병?
류기영 산부인과 교수 헬스경향/ 2월 27일/ 임신부 스트레스, 이렇게 '싹' 최호진 신경과 교수 서울경제/ 3월 13일/ 내년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관리비용 연 3000만원, 가족은 '돌봄부담'
김형석 외과 교수 중앙일보/ 2월 1일 /유방암, 韓여성 40대가 가장 많아"…이른 초경, 늦은 결혼 탓?
이영석 정형외과 교수 서울신문/ 2월 10일/ 명절 끝나고 손목 저리고 아프다면… 1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후생신보/ 2월 3일/ 전신경화증과 연관된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에서 항섬유화제의 역할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헬스경향/ 2월 6일/ 천의얼굴 '루푸스', 발병 관여 유전자 및 면역경로 찾았다
성운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코메디닷컴/ 2월 25일/ "류마티스 질환자, 면역억제 치료 중이라면 '이 백신' 접종 필수"

한양대학교병원

전 직원 대상 환자경험 향상 교육 실시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원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신뢰 형성을 위한 올바른 응대 태도와 소통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형중 병원장은 "본원은 환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환자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심어주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참여자 모집기관 선정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참여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김인아 책임연구자(직업환경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의학연구원, 건강검진센터, 국제협력병원, 인체유래물은행 등 원내외 관계 기관의 협력하에 2028년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잇몸병 예방과 관리 공개 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본관 3층 강당에서 '잇몸병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공개 강좌를 개최했다.

한지영 치과 과장은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성 변화가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방치하면 치아 손실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당뇨,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6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혈액투석 우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평가 결과 한양대학교병원은 종합점수 97.9점으로 전체 평균 82.4점 및 상급종합병원 종별평균 95.8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과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에서는 만점을 획득해 그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임상시험센터 (주)드림씨아이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조수경)는 지난 3월 4일 동관 5층 회의실에서 ㈜드림씨아이에스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국내외 임상시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형중 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양대학교병원 이형중 병원장은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20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양대학교병원 이형중 병원장, 권오균 경영지원실장, 이항락 부원장, 김희진 기획조정실장, 공상훈 운영지원국장을 비롯한 병원의 주요 보직자와 진료협력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병원 간의 다양한 진료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진료협력 간 네트워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본원은 서울 동남권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진료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중 병원장, 사이버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한양대학교병원 이형중 병원장은 지난 3월 28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양발달의학센터,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여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4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최됐다. 김인향 한양발달의학센터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더욱 전문적이고 정교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2월 5일 사회복지팀, 소아청소년과, 건강증진센터의 주관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환 병원장은 "이번 검진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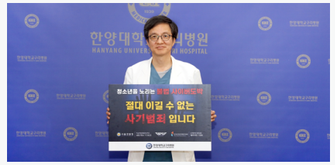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23. 1월 ~'23. 6월 진료분에 대한 평가 결과이며, ▲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 칼슘×인 충족률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수술실 리모델링 및 로봇수술센터 개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2월 28일 '수술실 리모델링 및 로봇수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승환 병원장, 심재항 수술실장 등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리모델링은 100일 동안 수술실 개별 공조·양압 시스템 개선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술실 리모델링 외에도 새로운 장비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했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승환 병원장, 사이버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병원장은 지난 3월 26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인물동정



이종욱 석좌교수 국제 공동 연구팀, 최고 권위 학술지 『Blood』 게재

한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종욱 석좌교수가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발작성야간혈색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이하 PNH) 환자에서 심각한 혈관 외 용혈(Extravascular hemolysis; EVH)을 동반한 경우, 혈관 외 용혈을 억제해주는 다니코판을 라불리주맙 또는 에쿨리주맙과 병용 투여할 때 장기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혈액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블러드(Blood, IF 21.1)』 145권 8호(2월 20일자)에 수록됐다.



이항락 교수,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가 지난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ESGE Days 2025(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날 2025)'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Acute Non-Variceal Upper GI Bleeding – Advances in Hemostasis: Cap-Mounted Clips-First-Line or Rescue Therapy?'를 주제로 강연하며, 급성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최신 지혈 기법과 캡 부착 클립(Cap-Mounted Clips)의 일차 치료 또는 구제 치료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강의했다.



박선철 교수, 학술지 『풀브라이트 크로니클』 편집위원 위촉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교수가 『풀브라이트 크로니클(Fulbright Chronicles)』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풀브라이트 크로니클은 전 세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동문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학술지이다. 박 교수는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 받아, 하버드 의대 협력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 진단체계의 조작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현상학적 정신병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간담췌 수술 전문가 박예종 교수, 진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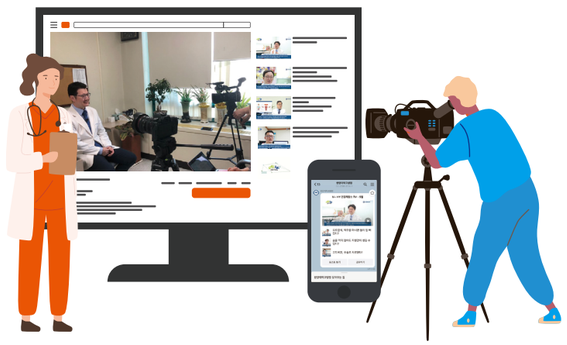
간담췌 수술 분야에서 고난이도 수술 전문가인 박예종 교수가 지난 4월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에서 수년간 중증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과 진료를 맡아온 간담췌암 분야의 전문가이다. 지난 6년간 췌장·담도·담낭 및 간절제술을 포함해 간담췌 분야의 양성, 악성질환에 대해 약 2,400차례 이상 수술을 집도했다. 특히 3D복강경 및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침습수술 등 국내에서 고난이도 수술 경험을 지닌 의사로 손꼽힌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5년 3월 ~ 4월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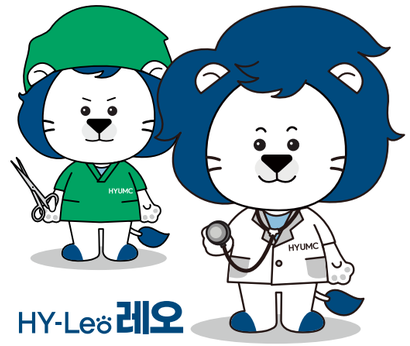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블로그
'Hihy 건강저장소'
https://blog.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

NAVER 블로그 Hihy 건강저장소 블로그



한양대학교병원 블로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5 로봇수술에 대한 모든것! 로보닥
다양한 질환을 좀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로봇 수술! 각 분야의 어떤 질환들을 로봇으로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한지영 교수 김지영 교수 김연환 교수 박진선 교수 이원준 교수



박세윤 교수 박진선 교수 정규환 교수 안성준 교수

새로운 시리즈
'암 환자 영양, 바로 알기'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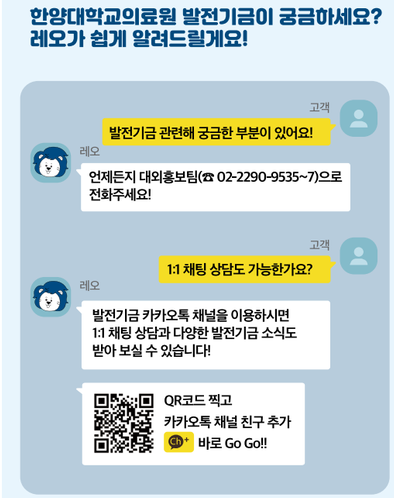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환경개선, 연구개발, 학술지원, 인재양성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발전기금 홈페이지 QR코드



기부 분야

환경개선	연구개발	학술지원	인재양성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7

기부 방법

방법 1 약정서 제출

- ▶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 약정서 내용 작성
-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방법 2 온라인 약정

- ▶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인식
- ▶ '온라인 기부' 클릭
-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부자 명단

2025년 2월 ~ 3월

명예의 전당	1억 원 이상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최현만 前 미래에셋증권 회장	조옥희 고객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최원아 고객				
50만 원 이상 ~ 1백만 원 미만	국은영 직원	김병제 김병제 내과	오영하 교수	최원준 다채움피부과의원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공상훈 직원	국인철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도윤 새움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연주 직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진녀 직원	김태완 흥익안과
	남은미 직원	박미숙 직원	박신준 고객	박정하 직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고객	소현수 동문	손유경 직원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양 현 직원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새움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인병원	이진규 교수	이희제 연세정형외과	정규성 교수
	정승원 산본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새움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주일한 메디인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성훈 교수	최윤영 교수	최진미 직원	최충혁 교수	최혁중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한현수 직원	황규태 교수		
10만 원 미만	권난희	권연희	김나영	김명환	김소윤
	김애경	김춘애	김희수	문병임	민이현
	민지훈	박경숙	박미옥	박상혁	박유순
	박지경	박진식	박진희	서혜영	손진석
	신정미	심지훈	안계현	안미경	양미영
	연제호	염주일	오기향	오정님	오홍석
	유혜경	윤용호	음희재	이경철	이의산
	이정희	이현주	임연희	임지영	전순아
	진춘희	최순익	황미현	황운택	황희복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심층진찰이란?

심층진찰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문적인 진료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중증·희귀질환(의심) 초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상태 파악, 진단, 치료계획 수립 등을 진행합니다. 심층진찰은 15분 이상 소요되며, 전문의가 집중적으로 진료합니다.

※ **심층진찰은 일부 진료과에 한해 시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심층진찰은 다음과 같은 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환자

① 의사가 심층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재진환자

①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심자)
②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신생아(이른둥이 포함)
③ 중증·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
④ 내과계 복합질환 환자
⑤ 상급종합병원 진료 종결 관련 심층진료가 필요한 환자

※ **대상 : 건강보험 자격환자(차상위 포함)**
※ **다른 대상자 진료 불가**

심층진찰 진료과 및 의료진 안내

진료과	의료진	진료과목	진료시간
신경과	김희진 교수	초로성 치매, 전두측두엽치매, 카다실(CADASIL), 루이소체 치매	금요일 오후
혈액종양내과	박병배 교수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목요일 오후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	발달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만성호흡장애, 신생아패혈증	화요일 오전
	이현주 교수	발달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만성호흡장애, 신생아패혈증	금요일 오전
피부과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교수	중증 건선, 중증 아토피피부염, 루푸스, 피부근염, 화농성 한선염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예약 및 진료 절차

	신환/초진환자	재진환자
진료의뢰	1,2차 의료기관(의원, 병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의뢰된 환자	진료에서 심층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예약	진료협력센터 전화: 02-2290-8900 전자의뢰 시스템 본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예약 불가	해당 진료과 예약
방문	본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 방문 · 접수 심층진료동의서 작성 진료과 방문	접수 및 진료과 방문 심층진료동의서 작성
진료 및 회송	심층진료 시행 전문의 직접 진료하여 향후 진단/검사/회송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심층진료 시행 전문의 직접 진료하여 향후 진단/검사/회송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 2025년 4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이오영	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화,수,목,토(2주)	수	간질환, 간암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4주)	수,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화	목	담낭, 담도, 췌장
	이상표	월, 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아일린	수	수,목,금	간질환, 간암
	박진화	목, 토(1주)	월,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효영	화, 수, 토(3주)	목,금	간질환, 간암
	임대현	목, 금, 토(4주)	화	췌담도, 간 위, 장 내시경
심장내과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혈관질환 예방, 심혈관중재술, 심장초음파
	임영효	수, 금	월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시술, 대동맥 판막 협착증
	박진규	월,목(부정맥클리닉)	화	부정맥상심실상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 도자절제술 ※박동기클리닉(목) 삽입동기 삽입형제세동기 상장박동기화치료
	허 란	화	월, 목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갑인선전성증 심질환 심장초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해 외 연 수(~2026.2.28.)		
	박진선	화박동기클리닉, 토(2주)	월 수	부정맥상심실상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 도자 절제술 ※박동기클리닉(화)삽입동기 삽입형제세동기 상장박동기화치료
	박수정		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중재시술, 심장내과 일반질환
	조하헤	목, 토(4주)	화, 금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갑인선전성증 심질환 심장초음파
신장내과	김근호	월, 금, 토(4주)	화, 목	전해질 장애, 신부전, 복막투석, 고혈압, 부종
	이창화	화, 수, 금 토(1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만성신부전 고혈압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종욱	수	월, 목,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화, 목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질환 갑상선질환 각종 호르몬이상당뇨병 말단비대증
	박정환	월, 수, 금 토(2주)	수,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대사관련질환
	문신제	월, 수, 목, 토(1주)	화,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대사관련질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만성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간질성 폐질환
	손장원	목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기침,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면역치료, 약물부작용
	박동원	월,목	수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결절, 폐암 Post-Covid 증후군 결핵비결핵항산균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기침
	한동우	화, 수	금	일반 호흡기질환
혈액종양내과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골수종(재/난치성), 두경부종양, 뇌종양, 두경부종양 식도암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 다발성 골수종 (70세미만), 조혈모세포이식
	이종욱	화, 수, 목		재생불량성 빈혈, 발작성야간혈색뇨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감염내과	배현주	장 기 출 장		
	김봉영	월▲,화,수▲,금▲	화▲, 수, 목▲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사용,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김진남	월▲, 수▲, 목, 금▲	월 화▲, 목▲,금(4/11)	감염질환 HIV/AIDS, 불명열 항생제사용,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 감염관리 활동)
	박세윤	월 화▲,목▲,금▲	월▲, 수▲, 금(4/4, 25)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사용,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윤초석	화▲, 수▲, 목▲, 금	월▲,목,수▲,금(4/18)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사용,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경피관리(▲ 감염관리 활동)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 화, 수, 금	월~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외과계	전종헌	월~금	월~금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1	장영은	월~금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2	강일모	월~목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소아청소년과 2290-8380	구자욱	월 수	화 수	소아신장 혈뇨, 단백뇨, 신증후군, 요로감염 야뇨증, 신장낭종
	김용주	화(내시경만), 금(내시경)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소아비만 영양부진 특수 영양치료, 중금속 중독, 내시경치료
	양 승	목, 금, 토(24주)	화동관찰) 목동관찰) 금동관찰)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희귀유전질환, 희귀대사질환
	문진화		수	두통, 뇌전증, 얼굴이경련), 뇌수막염, 뇌기능장애, 신경유전대사질환, 경유아발달평가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안지혜	휴 진		
	나재윤	수, 토(1주)	화 수(심장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족사끼병, 소아 중환자
	임성민	월화▲,목금▲,토(2주)	화▲, 수, 목▲, 금▲	소아 갑상선 질환, 발열, 불명열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활동)
	최진주	월, 화, 토(4주)	월, 목	일반소아질환, 소아내분비질환(성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 당뇨)
	유명진		화, 금	
	강윤구	월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이현주	월, 화, 수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육아지도실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영유아검진(일반)			
	예방접종(일반)			육아상담, 예방접종
신경과&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퇴행성질환(루게릭병-초진은 수요일 오후만 예약),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장애 초진), 목▲	화,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초진은 수요일만 가능, 화/목 초진 불가), 손떨림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김영서	월금 토(3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오기욱	수▲(루게릭)	월▲(루게릭), 수▲(루게릭초진), 목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3주)	월	뇌졸중,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화 금▲, 토(2주)	월▲	퇴행성질환(루게릭병, 치매), 유전성 신경계질환 두통, 어지럼증
	정 수	목, 토(1주)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목▲,토(4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강일모	금 토(3주)		일반 신경과 질환
	강성우	월 수 금▲, 토(2주)	수	치매,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 두뇌건강
	일반	화▲	화▲	동일 신경과 약제변인 가능 보험 회사제출용 진단서
정신건강 의학과	권준수	수, 목	월	조현병, 강박증
	노성원	화 금 토(3주)	월, 목	중독성물질(알코올, 담배, 도박, 게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조울증, 조울병), 불안장애(공황장애), 우울증(주요우울장애)
	김인향	월 수, 토(24주)	수, 금	소아/성인 ADHD(집중력문제), 틱, 발달지연, 소아청소년트라우마, 학교스트레스, 가족치료
	김낙영	월 토(1-5주)	화, 목, 금	치매, 노인우울증,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피부과	고주연	화 금	월,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화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일레르기성 피부질환 결節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주민숙	수, 목, 금	월,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두경 및 전군성질환 피부암
외과 상부위장관	하태경	화	월(비만)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로봇 위암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외과 상부위장관	이주희	해 외 연 수(~2026.2.28.)		
외과 혈관	최지윤	화, 금	수	혈관외과, 신장이식
외과 췌장, 간담도	이경근	목	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외과 췌장, 간담도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췌장, 간담도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외과 췌장, 간담도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간이식,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대장, 항문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대장, 항문	박성실	화	금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외과 유방, 갑상선	정민성	목	월, 목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로봇수술
외과 유방, 갑상선	차치환	수	화, 수	유방암, 로봇수술
외과 유방, 갑상선	문소현	월	금	유방암, 로봇수술
외과 갑상선, 부갑상선	박신정	목	금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부갑상선암, 내분비외과, 부신질환, 로봇질환, 양성유방질환
외과 소아	손준혁	금	화	소아: 소아외과질환 성인: 성인 탈장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장질환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효준	월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 기흉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승환	목	화	흉부중양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부기형(오목가슴 새가슴) 기흉, 대한동 흉부외상(기흉 혈흉, 갈비뼈 골절), 폐동맥색전증(폐색전증)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현수	수, 금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 동맥류 말초혈관질환 (말초동맥 협착증 및 폐색,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연수	화	목	폐 식도, 흉강경 수술, 하지정맥류, 누두흉, 대한동
정형외과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정형외과	이봉근	목	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김이석	수	월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정형외과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이창훈	해 외 연 수(~2025.7.31.)		
정형외과	최성훈	금	화,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정형외과	배근형		화, 금	소아정형(소아골절, 족관절, 고관절)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백광흠	월, 수		요통, 디스크(머리, 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목요일 오전 경추클리닉(요추 재진진료도 가능)
	최규선		월,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금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홍승우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및 동정맥기형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한건희	화	금	뇌혈관질환,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김연환	화, 목	화	상하지재건, 화상 및 외상후 재건, 욕창, 골수염, 미용성형(코), 두경부암재건
	장란숙	월	월, 목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소아성형, 안면외상, 만성창상, 레이노 증후군
	김효성	화	수, 금	미용성형(눈), 양성종양, 만성창상, 욕창
	김지영	수, 금	월	유방성형 및 유방재건, 피부암, 안면외상, 흉터&켈로이드, 안면마비재건, 림프부종
산부인과	황정혜		월, 목	여성생식, 갱년기, 불임상담(난임시술X)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화, 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토(4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24주) 목요일 오전: 여성암생존자클리닉
	이원무	화 금, 토(2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 수, 토(1주)	금	일반산부인과
안과	임한웅	화	월, 목	성인사시, 매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 금	화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수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김유정	월, 금	수	각막질환, 건성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소그렌증후군, 백내장
	김지홍	월, 목	수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박혜민	목	화, 목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토(3주)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내시경수술, 코성형
	송창면	목	화(클리닉), 목(음성클리닉)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정재호	화, 목, 토(2주)	화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안면신경질환
	한상윤	수, 금, 토(1주)	월, 수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전이개누공,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김용태	화, 목	화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해 외 연 수(~2025.8.31.)		
	윤영은	월, 화	월, 화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비대증
	정규환	수, 금	수, 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재활의학과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뇌인재활, 뇌신경재활
	최수진	월(사전등록환자만)	화,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통증재활
방사선종양학과	박혜진	월, 화, 목	화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신경과 침샘치료, 방관암연구환자(p.박권오)
	정주현	수, 금	월, 수	부인암, 전립선암, 소화기암, 림프종, Sarcoma, Brain Tumor, 기타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 치료
치과	황경균	월, 화	월, 화, 목	턱얼굴성형(기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타액선)질환,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임플란트, 잇몸/뼈이식술, 턱얼굴 성형수술, 턱얼굴 골절수술, 기타 구강외과 수술
	한지영	월, 화, 수, 금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화, 금	월, 화,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월, 수, 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중장년교정, 소아교정(치아맹출장애, 턱성장조절, 예방교정), 소아예방치료(불소, 홈메우기), 소아충치치료
	인희진	월, 화, 수, 목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충치치료
	일반	월~금	월~금	일반진료
	스케일링	수, 목, 금	수, 목, 금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화,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금	수	노인의학, 금연, 비만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황환식		화, 금	
	박계영	화, 금	수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서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이수진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서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김인아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수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서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김양우		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서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일반	월, 수, 목, 금, 토(3주)	금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골관절염2
	전재범	화, 수, 금, 토(1주)	목, 금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 수, 목, 토(1, 3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목, 금	월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프스, 골관절염
	조수경	월, 수, 목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최세림	수, 목, 금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김용범	월, 금	월,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수, 금, 토(4주)	월, 수	족부자활, 류마티스자활, 근골격자활, 발크라니
	이규훈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족부자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자활
통증의학과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월	소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질환 관련 건성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 4주)		포도막염, 류마티스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종합검진센터	박훈기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 토(2주)	화, 금	가정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5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암초기간암
	한동수	목	화	위장관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위장관질환 기능성위장질환,위질환,대장질환,용종절제술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대장질환,식도질환,소장질환,위암,대장암,대장용종,용종절제술
	안지현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암초기간암
	주현돈	화, 목		췌장질환,담도질환,담석증,췌장암,담도암,췌장암
	오은혜			위질환, 식도질환, 대장질환, 대장종양, 위종양, 식도종양, 염증성장질환,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치료내시경
	이재곤	월, 화	금	위질환, 대장질환
	정병욱	수, 금	화	위질환,대장질환위뷰어경,대장내시경,소장뷰어경,용종절제술,위암,대장암내시경절제술,췌장암 장질환
	김하일	금	화, 수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암초기간암
심장내과	박환철	화, 목, 토(1주)	수	부정맥성질환 심방세동,상심실성빈맥등기능부전증후군,선택형부정맥,허혈성심혈관질환스텐트시술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신정훈	월, 수	목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심근경색질환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고혈압 심부전 대사증후군
	김병식	월, 수, 토(2주)	목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 중재 시술,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5주)	수, 금	관상동맥질환,심혈관중재술,심부전말초혈관질환중증이뇨제혈압환 대동맥질환,구조심질환
	김현진	금, 토(4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장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신장내과 ▲클리닉	한상웅	월, 수, 목	회▲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 수▲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 금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선민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신영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당뇨병에방 당뇨병치료,갑상선질환,골다공증
	유성훈	월, 목	월, 화	당뇨병,갑상선질환,골다공증,내분비종양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화, 금, 토(1주)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수, 목, 토(5주)	화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베체트병,섬유근통,안면통증,소그렌
	방소영	화, 금, 토(1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루푸스,강직척추염,통풍,골관절염,베체트병,소그렌,염증성근염
	주영빈	월, 목, 금, 토(1,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경피증,베체트병,피부근염,섬유근통,소그렌
혈액종양내과	김태형	월, 목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박태선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호흡기내과	여유미	화, 수	금	간질성폐질환, 폐암, 결핵, COPD, 천식
	곽현정	화, 수	월, 목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한경일	목, 금	월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암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유방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원영웅	월, 수	화, 수	뇌신경암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흉막암 위암 소장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육종 기타 전이암재발암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림프종 다발골수종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이상 등 기타 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태은	금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 금	월, 화	소아신경질환 정형 영상정환 뇌전증 뇌염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ADHD, 발달지연 발달장애 뇌파검사
	최영진	월, 수, 토(2,3,4주)	월, 수,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모세기관지염, 폐렴,소아알레르기질환,변비,설사,복통,소아감염
	최윤수	화, 금, 토(1주)	화, 수, 금	저신장,성조숙증,비만,당뇨,갑상선질환,부신질환,뇌하수체질환,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해 외 연 수		
	나재윤	금		소아청소년 신장질환,청색증 기외사키병,심장음,고혈압,혈관질환,부정맥 실신, 성인선천성심장병
	황제균	화, 목		신생아황달, 미숙아황달, 영아황달, 에방접종, 국가영유아검진, 육아상담
	유지선	월, 목, 토(5주)	월, 수, 목	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질환, 당뇨 비만, 지방간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 수, 금	화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 화,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 토(1,4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박성호	월, 수, 토(2,3주)	금	뇌졸중,두통,Intervention clinic
	일반		화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	김대호	수, 목, 금▲	월, 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월▲,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재발성우울증
	박선철	해 외 연 수		
	윤진웅	월, 화, 토(2,4주)	목, 금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소아발달장애, 소아ADHD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2주)	화	조기진통, 조산, 고위험 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치료, 단일공팽 복강경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자궁하수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부인자궁암 난소암 단일공팽 복강경 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부인암클리닉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내수술/뇌혈관내수술(안중의), 두부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류제일	화, 수, 토(2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한명훈	해 외 연 수		
	원유덕	금, 토(3주)	월, 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종양 혈관기형 혈관내수술 뇌외상
	하병진	목, 토(4주)	월, 화	퇴행성척추질환디스크협착증,척추외상,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수술 통증중재시술
	강상묵	월, 목, 토(5주)	수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종양, 혈관 내 수술, 두부외상
	나민균		금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고신옹	화, 금	목	뇌동맥류,모야모야병,뇌혈관협착,뇌출혈,뇌종양,혈관기형혈관내수술,뇌외상
심장혈관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금	심장질환(관상동맥심장판막질환,심장종양),대동맥및혈관질환(동장맥류,말초동맥질환),하지정맥류등),흉부외상,기흉,EMO
	최수환	월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막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퇴행성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및 강직성척추염, 척추손상, 경추질환 및 척추관협착
	박기철	수, 금	월	외상클리닉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골수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정규성	화, 토(1주)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
	조영훈	화, 목	월	견주관절, 관절경, 스포츠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질환, 슈부피파열,러시아바수술, 골절 및 외상
	이영석	월, 토(3주)	화, 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티스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경
	소재완	목, 토(5주)	화, 수	퇴행성 경추요추 질환 경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요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경추요추 외상 척수 협착적추수술 미세 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김현준	토(2주)	목, 금	척추 일반 질환 경추, 흉추, 요추
	김성재	월, 금, 토(4주)	월	팔꿈 팔목의 모든 질환 팔꿈 및 어깨 관절경술 최소침습적 부피어팬질환 및 수술 최소절개 충돌증후군 팔 수술 충돌증수술 및 시큰관절병증 재건 팔목관절어깨재건술 팔꿈 및 요목재건술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말초신경수술 수부재건, 유방성형 당뇨발, 욕창
	이장현	화 토(1,2,3,4주)	목	안검하수 안면기형안면골절 피부암 림프종양 이중성형 욕창 당뇨발 난치성창
	장정우	월, 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수	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성형 당뇨발, 미용성형
외과	박원겸	월, 목	화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줄기세포 치료, 연구, 제대혈줄기세포 클리닉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토	월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위궤양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김형석	월, 목, 토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외과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김현일		목	중환자실전담진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조유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탈장, 소아외과질환, 성인탈장
	황성환		화, 금	항문질환 치질
	최광우	화, 금	목	동정맥루, 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 말초혈관질환, 중심정맥관, 복부대동맥류, 신장이식
	박예종	수	월, 수	간담췌 외과, 복강경 수술
이비인후과	강민호	화, 목, 토(1주)	월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함몰백내장, 인공수정체 탈구, 시각장애인스포츠
	신용운	월, 목	월▲, 수, 목▲	양악변형, 외과재건술, 안면기형, 안면외상, 코골이수술, 이비인후과질환
	홍은희	화, 토(3주)	수, 금	신경안과 시사 소아안과 저시력 신경원막염 선천안검하수 눈물길 클리닉
	황선진	수, 토(4주)	화, 수▲, 금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윤주영	월, 토(2주)	화, 목	녹내장, 고안압증, 백내장
	홍림경	금	월	백내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일반 안과질환
피부과	김정수	월,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사마귀성질환 건선 내성별통
	서현민	수, 토(2,4주)	월, 수, 목, 금(1,3,5주)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토(5주)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2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미개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비후비중증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화	두경부종양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수술 경부종양 음성질환 생리검열
	정선민	수, 토(3주)	월, 금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부비동염 내시경부비동수술 비중격수술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아비인후과감염질환 알레르비인후과질환
	서희원	목, 토(1,4주)	월, 수, 금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 목, 토(3주)	월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의학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남성과학
	심명선	월, 토(5주)	수, 목	전립선염 신장암 방광암 다한지로봇수술 복강경수술 소아비뇨기과질환 전립선질환 결석
	송병도	화, 토(2주)	월, 금	배뇨장애, 비뇨기계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스포츠의학 뇌신경재활 도수치료
	한승준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 보행분석 족부질환 도수치료
	박재현	월	화, 금	근골격계재활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질환 운동치료 도수치료
	윤여준	목, 금	월	뇌질환재활(이상성뇌손상 뇌졸중,의식장애 파킨슨병), 삼킴장애 경직치료, 도수치료
치과	박원희	월-목, 토(1-3주)	수	심미보철 일반보철 상악동거상술 치아이식 턱관절질환 치주질환
	김윤영	화, 금 토(2,4,5주)	월 화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주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형두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암, 유전성 질환, 유전성 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수술 마취전 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수, 금	월	급성통증치료, 만성통증치료, 요통, 관절통, 암성통증, 신경병증성통증 대상포진후신경통, 척추통증
	박형준	화, 목, 토(4주)	수, 목	퇴행성관절통,근골격계질환(어깨,무릎,목,허리),요통,관절통,신경병증성통증,암성통증,척추통증(디스크,협착증),두통,대상포진후신경통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베체트병섬유근통안면통증소그렌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루푸스강직척추염통풍골관절염베체트병소그렌,염증성근염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경피증베체트병피부근염섬유근통소그렌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목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스포츠의학 뇌신경재활 도수치료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목	근골격계재활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질환, 운동치료 도수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신경계통양 척추외상(외상외과세부전문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09:00

진단검사를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

한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면역검사실

장보연 의료기사

한양대학교병원에는 환자 몸에 있는 자가면역 항체를 정확히 검출해 치료 방향을 돕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장보연 의료기사는 정밀 장비를 활용해 응급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들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수십 건의 검사를 준비하며, 외래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과거 채혈실에서 환자들과 나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그는 모든 검사 결과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